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통장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9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동북아 불교의 굵은 맥을 이루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 협력관계 유지와 인적교류 등 상호유대를 선언했다. 지구촌의 불국토화를 위한 거룩한 내디딤이다. 이제 국가와 민족의 벽을 뛰어 넘어 부처님 회상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롭게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다진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공동체의식으로 행동을 같이 하도록 배워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하게 된다. 이같은 이기적 가치관이 팽배한 현실에서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 대회는 국경을 넘어선 동사섭 정신의 실천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편집자주〉

4가지 법으로…

사섭법(四攝法)은 사법사(四法事)라 하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의 마음을 인도하여 불도에 끌어들이는 네가지 방법이다. 사섭법은 보시섭(布施攝) 애어섭(愛語攝) 이행섭(利行攝) 동사섭(同事攝)이다. 〈집이문시론〉

"수장자야, 너는 지금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법으로 이끌어 들이는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일로 이끌어 들입니다. 은혜로써 베푸는 것이요, 부드러운 말로써 대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요, 행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장자여. 너는 법답게 대중을 이끌어 들이고, 문(門)답게 대중을 이끌어 들이며 인연답게 대중을 이끌어 들이는구나" 〈중아함경〉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어진 반려가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법구경〉

모든 형제들을 내가 다 따라 섬기며 공양하기를 부처님께 하듯 하리니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고, 길잃은 이에게는 길을 가르쳐주고, 어둠속에서는 등불이 되리라.〈화엄경〉

벗이 된 자는 마땅히 바른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마음을 한하지 않으며 딴마음을 먹지 않으며, 때때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은혜의 두터움을 잊지 않음이다. 또 벗들쪽에서도 다섯가지 일로 그 벗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네에게 돌아오도록 하며 방일을 자주 책망하며, 개인적인 비밀을 숨겨주고 공양을 더욱 낫게 하며 말이 성실함이다. 〈선생자경〉

벗 사이에는 세가지 긴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과실을 보면 서로 깨우쳐 주고 충고함이요, 둘째는 공덕이 되는 일을 보면 깊이 따라서 기뻐함이요, 셋째는 불행에 있을 때는 서로 버리지 않음이다. 〈인과경〉

관련기사 2 · 3면

3국불교 "청정지구촌 만들자"

한중일불교교류회의 환경보호·난민구제등 '서울선언' 채택

3차대회 日교토서 내년 10월 개최

관련기사 2 · 3면

환경보호와 난민구제등 세계평화를 위한 한 · 중 · 일 3국 불자들의 역할을 제시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됐다.

한 · 중 · 일 3국의 불교지도자들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를 개최하고 21세기에 있어서 3국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 중국 북경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서울대회에는 한국에서 송월주종단협의회장을 비롯 19개종단종정,원로,총무원장,신행단체장등 4백여명과 중국에서 명양(明陽)중국불교협회부회장을 대표단장으로 각 성 불교협회장등 3백여명,일본에서 나까무라 고오류(中村康隆 정토종 문주)일본불교회장을 비롯 각 종단대표와 참관단 3백여명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10일 개막식에서 대회장 월주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류공동의 해탈과 평화 행복과 번영의 길이며, 21세기를 향도할 진리의 빛임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3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중생의 아픔을 치료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두차례에 걸친 기조연설과 보충연설을 통해 각국 대표들은 3국이 공동으로 전개할 평화운동 환경보존 문화교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뒤 폐회했다.

한편 폐회에앞서 3국 실무자들은 제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를 97년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준엽 기자〉

공동선언문 요지

△문화 · 학술교류: '한중일불교문화재 전시회'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 3국불교도의 공통된 불교문화 우수성을 확인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인력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3국이 공유하는 한자를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대장경의 연구, 정리, 전산화작업을 공동수행.

△상호간의 참관방문과 교류: 사찰방문단을 결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3국불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 정토세계를 구현.

△환경보존과 평화수호: 핵무기의 전면폐기와 '핵무기 실험금지조약'의 실현 등에 노력.

△세계난민구제: 난민구제활동에 참여하기위한 방법과 기구구성에 대해 연구.



"함께 갑시다"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는 21세기 불교역할과 사명에 대해 논의를 펼치고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왼쪽부터 중국 명양스님 월주스님 일본 나까무라 고오류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김대통령 환영축전

남미를 순방중인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0일 3국불교대회 개회식에 축전을 보내 대회개최를 축하했다. 김대통령은 3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사명을 모색하는 동시에 오늘의 불교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세계유산 '과학보존' 절실

문화재관리국 '유산지침' 해당 시·도에 전달

유네스코 한국위, 대법원에 골프장반대 공문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0일 서울시와 경상남 · 북도 해인사 종묘사무소에 '세계문화유산 보존 · 보호관리지침'을 보내고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지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산관리단체는 세계유산등록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관리 및 보호 외에 △정기점검 및 조사계획의 수립과 기록 작성 유지 △보존관리상 예외적 상황발생시 수시보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관할 시 · 군 등 행정기관은 세계유산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 · 개축 및 각종 환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세계유산 보존 ·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학술적 · 과학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에서는 또 세계유산 관리주체를 문화재관리국과 해당 자치단체(경상남 · 북도 및 관할 시 · 군), 유산관리단체(해인사 불국사 종묘)이며, 각 관리주체는 △세계유산 관리 기본정책 및 계획수립, 세계유산 협약 관련사항 집행 △세계유산 보호관리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세계유산 보호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12일 "해인골프장 건설이 확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상정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내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 보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주 20면 발행
조계사 도량확장불사 '순조' 15면
'자비 나누는 한가위'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2-1556-3

컬러화보 신라왕자 김교각스님 展 18 · 19면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성지순례'를 미련, 대구 부산지역의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거대의 땅 부처님의 땅'으로 불리는 경주남산은 40여개의 계곡에 115곳의 절터, 87체의 불상, 71기의 석탑이 있는, 산 전체가 곧 장엄한 법당입니다. 가족과 함께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자극한 신심의 향취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
부산 · 대구지역 불자 초대합니다

- 일 시 : 1996년 10월 3일(목) 오전10시~오후4시
- 주 관 : 현대불교 부산지사 · 대구지사
- 인솔 현장강의 : 경주남산사랑모임(김덕수 · 김구석씨)
- 참가대상 : 초 중 고교 학생과 부모, 대구 · 부산지역 각 100명 선착순
- 출발 및 집결지 : 부산 · 대구 한마음선원 출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집결(오전 10시)
- 순례코스 : ①코스:삼릉골-마애육각불-상사암-금오봉-용장사터-절골-용장골 ②코스:용장골-절골-용장사터-금오봉-상사암-마애육각불-삼릉골
- 참가비 : 1인 1만5천원 ■준비물 : 도시락, 모자
- 접수처 : 부산지사(051)634-5114 대구지사(053)768-8008

경력 · 신입 사원모집

모집부문	응 시 요 건	인원
Computer Network	-Network Programming · TCP/IP기반 Unix Socket Programming · Windows95 Network Programming -Network Administration 가능자 · Unix 기반 Network Administration · Novell netware 기반 Network Administration -CGI, JAVA Programming 가능자	0명
Computer Programming	-Windows 95 Programming 가능자 -C++ Programming 가능자 -API Programming 가능자	0명
Database Programming	-Oracle, Informix 등 RDBMS Management Programming 능한자 -Database Design 및 Information System Design 경험자	0명

- 전형방법/1차: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2차:면접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각 1부)
- 접수기간/1996년 9월 25일(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
- 접수 · 문의/(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 (02)737-8881
- 이력서 우측상단에 응시부문, 희망 연봉, 긴급연락처 명기바람

현대불교신문사

最大의 민영제철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最大의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평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철강의 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最初의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最尖端 기술 국내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열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레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철강을 만듭니다.

最高의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 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

사 설

불교인구가 느는 이유

최근 불교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자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집계 결과 불자가 2% 늘었다. 최근의 인류·세계사적인 국면이 불교적 세계관을 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과학사상은 자연현상을 생물권 전체 또는 우주권 등 거대한 시야에서 관찰하고 있다. 유태·기독교적인 인간 또는 신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만물제문(萬物齊門)의 입장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의 만다라사상은 실용심리학에서도 이용되어 있다. 근세이후 세계를 휩쓸어 온 근세 서양과학은 그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에 기대를 하고 과학은 카오스이론으로 지금까지 방치해온 자연의 복잡성을 관찰한다.

본래 유태·기독교와 근대과학사상 그리고 공산주의는 유태민족의 일신교사상에서 나왔다. 일신교사상이란 '우주·세계 모두가 하나의 힘, 또는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개된다'는 믿음이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불교와는 정반대이다. 유태·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가 선이며, 공산주의자에게는 경제력이 그 '하나'였다. 신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자연지배를 기도해온 과학은 공해만을 축적해 왔다. 그들에게 이단시비, 반동숙청이 유별나게 심한 것은 그 '하나'를 다소라도 무시하는 일은 곧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죄인이나 악마를 타도하고 영광에 빛나는 신이 지배한다는 것은, 곧 부르조아지를 무너뜨리면 프로레타리아트가 지배하는 착취가 없는 공산낙원이 실현된다는 생각과 같다. 스탈린시대 소련이 2천만명 이상을 숙청하고 수용소군도를 만들었다. 히틀러의 나치가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6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일은 중세 천주교도가 저지른 이단에 대한 학살·종교재판과 같은 발상이다. 유일적인 힘이 어김없이 전인류, 전세계를 지배해 간다는 강렬한 보편주의적 신념이다. 이데올기의 종언은 그러한 광신적인 풍조를 사라지게 했다.

이 일련의 사실을 구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기독교→②공산주의 나치즘→③이데올기의 종언. 다소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변증법의 정·반·합의 구도이다.

이제 이데올기의 주문에서 벗어난 인류사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적인 공생, 타원적 사상이 지배적일 것이다. 전인류가 함께 생존하는 지혜가 요망될 때 불교적 세계관은 크게 각광받을 것이다.

처음 55개국으로 시작한 국제연합은 1995년 169개의 회원국을 갖게 되었으며 21세기 초에는 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카오스의 세계로 비친다. 이 추세는 종교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수많은 민족의 신, 곧 전통적 종교가 부활될 것이다. 앞으로 일신교적인 사상이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이성과 함께 관용성이 높은 불교가 크게 부상할 것이다. 불교의 방편사상은 교리의 근본만을 지니고 여러 각도로부터의 해석을 허용한다. 수많은 민족의 공생과 다원적 종교, 그리고 이들을 포용하는 관용성을 지니는 고등종교의 기대가 앞으로 21세기 범인류차원의 중대 관심사이다. 따라서 보살되기를 서원한 불자들의 어깨가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이다.

열린마당 정당불자회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14,16일 각각 신임 회장 취임 및 창립법회를 갖는다. 이처럼 각 정당 불자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교계에서는 '대선용'이라는 경계의 시각과 불교현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팽팽하다. 불교계와 각 정당불자회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대선용 의혹 떨치고 불법홍포 모임되길

정천구교수 〈인천대 정외과〉



개신교는 지난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교의 2배에 가까운 118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영향력과 비교할 때 반비례의 현상이다. 세속사회인 국가가 특정종교의 편향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라도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부분이다.

94년 조계종 개혁종단의 출범으로 과거와 달리 불교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불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95, 96년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마침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각 정당 불자회의 활발한 활동은 이같은 정치행사와 무관치 않다.

이런 현상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정당 불자회가 소속 정당에 불교의 가르침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각 정당불자회는 하나같이 불교계의 현안해소를 주요한 활동방향으로 삼고 있다. 순수한 목적이든, 정권창출을 위한 정당활동이든 불교계로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의 활동이 언제나 정권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속성을 감안해야만 한다.

정당은 우리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정당의 움직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속의 정치와 탈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는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 자칫 불교의 정치적 대응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진다면 불교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는다.

불교의 정치 행위는 대승적 견지에서 중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의명분에 충실한 참여이어야 하며, 정당의 활용이어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불자회가 소속정당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판도 불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리=정성운 기자〉

'불자 껴안기' 오해불식 바른정치 선도

심익섭교수 〈동국대 행정학과〉



얼마전 배달된 모정당 홍보물이 종단 큰스님 설법전문만으로 작성된 것을 보고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것도 유행인지 요즘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마다 경쟁적으로 불자회를 통한 '불교계 끌어안기'가 활발한 가운데, 급기야는 현정권 출범 이후 철옹성 같았던 청와대에도 불교신도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국교가 인정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최대종교로서 불자모임이 정치권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것은 불국토건설을 위한 포교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신자에게 다가선다는 현대불교 이미지 쇄신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마 한국의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이 최소한도의 불교가르침이라도 따랐다면 오늘날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이나 정부내의 불자회 활성화는 새삼스럽지는 않더라도 매우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와 현실정치의 관계는 서로 등을 돌린채 소원한 것도 이상하지만, 동시에 불교이념을 공유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에게 유착으로 보여지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접근해올 경우 불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불교계가 시험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당불자회에 소속된 불자들의 기본사고가 관계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동시에 이들 단체가 바른정치를 이끄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정당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당불자회를 이용해보겠다는 소극적인 사고보다는 정치발전의 기틀을 불교가 마련해 준다는 적극적인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불교계인사 초청간담회 준비

함종한의원 〈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우리 당의 불교신도회는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 매월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통해 당원들의 신심증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일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불교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는 정기총회 겸 신임회장 취임법회이다. 따라서 대선을 위해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고문단과 부회장단을 대폭 보강했다. 이는 불교가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세명중 한명이 불자이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후 우리 당의 불교신도회는 각 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초청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안을 경청해 정기국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타당성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할 것이다.

불교관련 정책대안 제시 창구

박상규의원 〈국민회의 연등회장〉

연등회는 무엇보다 불교신앙인의 모임으로, 회원들의 신심함양 그리고 청정불국토를 구현하려는 마음이 모인 법당이다. 나아가 불자국회의원으로서 불교계의 현안과 관련해 폭넓고 깊이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불교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연등회를 불교계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동안 새정치국민회의는 정책정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불교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일에 다소 소홀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성을 연등회는 앞으로 여러 활동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대선용' 또는 '일회용'이라는 경계의 시각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되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불법지혜로 정치마당 혁신을

정상구의원 〈자민련 불자회장〉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구하고 널리 중생에게 자비를 펼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요약된다. 또 불자라면 깨달음의 세계를 구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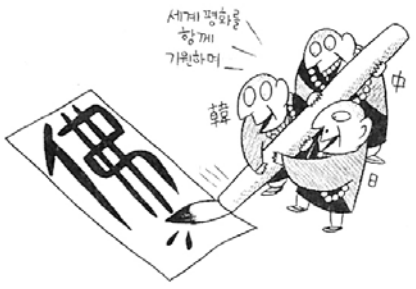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정치의 마당에서 펼치고자 하는 자민련불자회의 창립과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당의 이념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자민련불자회의 목적이다.

자민련불자회는 결코 대선용이 아니다. 혹시 당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불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단연코 거부할 것이다.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당원들의 불심을 북돋우고, 불교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한자가 통하니 뜻도…

한중일 불교교류대회 이모저모

각국 대표 유주무주 고혼 애도 '엄숙'

영산재·방송시설에 감탄

○…이번 서울대회는 단순한 토론에서 벗어나 한국불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3국대표들의 한국불교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11일 동국대가 주관한 세계평화기원 영산대법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세계인류사상 희생된 유주무주의 고혼을 애도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등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 또한 불교텔레비전이 마련한 불교문화 대제전은 계속되는 회의로 한국불교계를 살피지못했던 중국, 일본대표들에게 한국불교를 한눈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불교TV, 불교방송을 방문, 세계 유일의 불교방송 시설에 감탄을 연발했다.

여야정치인 발걸음 분주

○…3국불교대회가 열린 서울 워커힐호텔에는 불교계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분주. 이수성 국무총리와 김영수문체부장관이 대회 참석자들을 초청 오찬을 베푼데 이어 이홍구 신한국당 총재,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비롯 서석재, 정한용의원 등 20여명이 회의장을 방문했다.

귀빈자리 마련 '우왕좌왕'

○…국내에서 열린 국제불교회의로는 최대행사였던 이번 대회에도 옥의 티가 발견되어 아쉬움을 주기도. 가장큰 옥의티는 매끄럽지 않은 진행. 개막식이 열린 본대회장에 국내의 귀빈들을 입장하는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해 늦게 도착한 귀빈 자리를 마련하느라 우왕좌왕.

10일 각국 기조연설에서는 사회자가 보조연설없이 회의를 끝내려 고했다가 항의를 받고 연설자를 긴급히 소개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조박초단장 건강이유 불참

○…3국대회 탄생의 주역 조박초(趙朴初)중국 명예단장이 건강악화로 불참했으나 축전을 통해 서울대회의 성공을 기원, 본대회장을 숙연하게 했다. 조단장은 "성대한 서울대회에 참석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의사의 권고를 물리칠수 없어 유감천만이다"며 "군현(群賢)이 운집한 서울을 멀리바라보며 마음은 서울로 쏠리고 있어 환희를 금할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달라이라마 거론 강한 반발

○…서울대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최대 관심중의 하나는 인도에 망명중인 티벳정부와 중국 자치구에 있는 티벳불교의 관계. 그러나 중국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망명정부 지도자 달라이라마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보여 취재진을 당황시키기도.

달라이라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해 달라이라마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5차 금오문도 수련법회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오 큰스님의 참선수행사상과 정화이념을 더듬어 살피고 되새겨서 오늘에 실천하고자 하는 제5차 금오문도 수련법회를 다음의 내용으로 마련합니다.

세계인류의 평화와 희망을 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래 인류의 지도자로써 참 승가상을 정립하고 중생을 향한 바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이번 수련법회에 문도제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다 음 -

▪ 증 명 : 성림 월산 대종사
▪ 지도위원 : 범행스님, 탄성스님, 이두스님, 혜정스님, 월주스님, 월서스님, 월탄스님, 정일스님, 설조스님, 월룡스님, 천룡스님, 월은스님, 함주스님, 삼덕스님, 월나스님, 월선스님, 월국스님
▪ 준비위원 : 성타, 혜광, 도영, 무상, 지명, 종상, 법달, 성운, 현덕, 도원, 도법, 종광, 현일, 성본, 성일, 성돈, 성천, 진광, 성비, 평상, 도일
▪ 추진위원 : 도공, 각안, 명진, 진현, 각명, 현관, 원행, 성덕, 성중, 함현, 현수, 지원, 용담, 청화, 고담, 수원, 지학, 황석, 진원, 원진
▪ 일 시 : 입제 - 불기 2540년 9월 28일(음 8월 16일) 오후 3시
회향 - 불기 2540년 9월 29일(음 8월 17일 노스님 제일) 오후 2시(1박2일)
▪ 장 소 : 속리산 법주사
▪ 내 용 :
1. 대중포살 - 이두스님(해동불교대학장)
2. 금오대선사의 행장 -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3. 현대논리학과 사유형식 - 오상환교수(교수불자연합회장)
4. 21세기를 대비한 불교의 과제 - 황진수 교수(한성대)
▪ 기 타 :
1. 준비물 - 대가사와 장삼
2. 연락처 - 0433)43-3615 (속리산 법주사)
02)203-3677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불기 2540년 9월 일

금오문도수련법회대회장
금오손상좌문도회장 각 현 합장

3국불교벨트 재확인 '성과'

제2차 한·중·일불교우호회의 서울대회 의미

한·중·일 3국불교간의 황금유대 결성을 위해 지난 10~11일 양일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각국의 실질적 불교계 최고 지도자가 대거 참석해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 중국 북경에서 열린 1차대회가 3국의 불교유대 물꼬를 트는 선언적 역할을 했다면 이번 서울대회는 난민구제, 지구촌 환경보존,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치등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 회를 거듭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최국인 한국불교계로서는 한반도 불교전래 1천6백년만에 최초로 중국과 일본에서 일거에 5백여명이 넘는 불교지도자가 방문, 성공적으로 대회가 끝남에 따라 한국불교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성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서울대회에는 3국의 황금유대를 위한 각국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국 대표 대지(大智)스님은 '21세기를 맞으며 불교계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라는 주제 연설에서 "비구니승단은 계율의식을 강화하고 여러방도로 중생섭화와 사회복지를 도모해야 하며 재가여성들은 오계십선(五戒十善)의 도덕규범을 지녀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불교간 문화 학술 인재 정보교류를 추진함과 아울러 불교교단의 여성들간의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것도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비구니승가잡지를 출간하고 불교 여성학교를 창설하여 불교여성의 수학체험(修學體驗), 승단관리, 교수방법 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대표 지명 에이키(靖田榮輝)스님도 환경보전과 난민구제방안으로 "매년 3국을 순방하며 '자연환경보전 국제교류우호 세계평화기원회'를 봉행, 한국불교도는 복숭아나무 중국은 매화나무 일본은 벚나무묘목을 식재하자"고 제안했다. 어린묘목은 각나라의 어린이로 생각하고 서로간의 평화사절로 길러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다. 또한 매달 '한끼제공 운동'을 3국이 공동으로 전개해 난민구제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3국불교계의 황금유대를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실무방안에 대해서는 미약하다는 것이 참관자들의 견해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도 불교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구제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자는데는 합의를 보았으나 대부분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각국 대표들은 내년 일본대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들을 실천하기위한 실무기획단을 추진하는등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엽 기자

전산화·한끼제공운동등 실천안 논의

정보교류 기구설치등 문화유대 강화

▨삼국대표 공동 기자회견



◇서울대회에 참석한 3국대표단장들은 내년 일본대회이후 상설사무국을 설치, 구체적 실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로부터 중국 도술인 부단장 ·월주스님·일본 고바야시 부단장

"21세기 인류공영 의식 고취"

3국결속 구체화·일본대회후 상설 사무국 설치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에 참석한 3국 대표단(한국 월주스님·중국 도술인부단장·일본 고바야시 단장)은 지난 10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1세기를 향해 3국 공동사업과 인류 공존공영의 의식고취등 다양한 목적실현을 구상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위해 3국불교대표들은 교류목적에 부합하는 세계평화 국제환경 분쟁해결노력을 위해 내년 일본대회이후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다양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3국대표들은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한국에서는 불교의 세계화에 눈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개별적 모임이 종단간 모임으로 활성화되고 중국에서는 불교의 발전을 가져오는 등 성과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자리에서 한국대표 월주스님은 "중국 북경 연변 도문에 한국사찰을 짓겠다"고 말하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세계화로 확대하여 캄보디아 교육기관설립지원, 월남 한국인2세 복지기금 마련, 연변 조선족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中日스님 인터뷰

조주선맥 계승…"한국 禪에 감명"

中백림사 방장 정혜스님



"중국에는 10개의 계단에서 매년 3천여명의 승려가 배출되고 있으며 젊은 스님들이 염불보다는 선수행을 희망하고있어 앞으로 중국의 선(禪)불교 전망이 밝습니다."

'9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한 정혜스님은 "선(禪)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 감명을 받았다"며 "발전된 한국의 선불교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싶다"고 말했다.

조주스님이 선풍을 드날리던 백림사에서 조주선맥 잇기에 여념이 없는 정혜스님은 "20세기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있는 불성(佛性)에 회귀해야한다"며 자신의 신앙 점검을 강조했다.

3살 때 동진출가한 정혜스님은 중국근대 선불교중흥조인 허운대사의 법제자로 백림사에 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원을 건립하고있다.

"韓·中은 부모, 日불교는 아들"

日정토종 문주 고오류스님



일본 대표단 명예단장 나까무라 고오류스님(中村康隆)은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빡빡한 대회 일정동안 흐트러짐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어 대회참석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중국불교를 아버지,한국불교를 어머니로삼아 6세기에 공전한 일본의 불교는 아들이다"며 "그러나 일본인가운데 70-80%가 아들임을 잊고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 최대종파인 정토종 문주 고오류스님은 "3국불교의 황금유대를 견고히 하기위해서는 부처님가르침을 교리로만 해석하기보다 인간이 추구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오류스님은 8년째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일본측 회장을 맡고있으며, 3국불교우호교류대회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티벳스님 첫 공식방문… 양국우의 기원

티벳 탑이사주지 아가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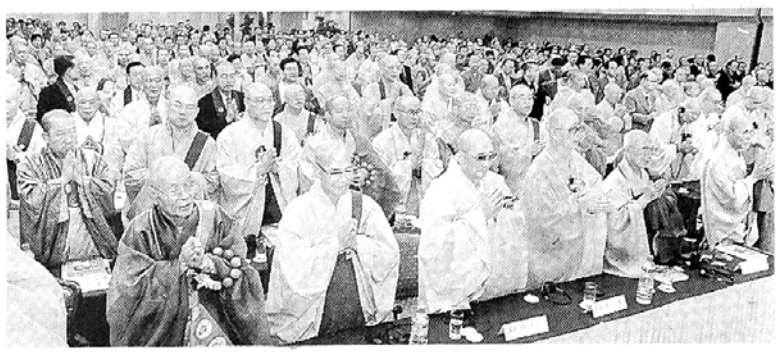


이번 3국불교우호교류회의에는 티벳의 승려 1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식적인 티벳승려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21세 아쟈활불로 추앙받고있는 아가스님이 티벳불교를 소개했다.

스님은 "티벳불교는 서장 감숙 사천 청해등 4개성에 분포되어있으며 인구 1천4백만명이 모두 불교신자다"며 티벳이 불교국가임을 강조했다. 또한 "티벳에는 25만명의 승려가 2만3천개의 사찰에서 교화와 정진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의 발전상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중국 청해의 탑이사를 방문해 서로 이해하고 우의를 증진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2살 때 제20세 아쟈활불의 환생신동으로 인정받아 1952년 탑이사에서 승좌의식을 거행했다. 현재 탑이사에는 종합적인 경전관과 도서관 불사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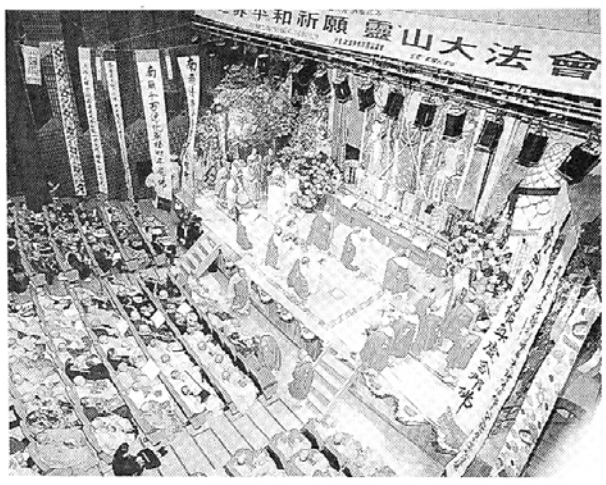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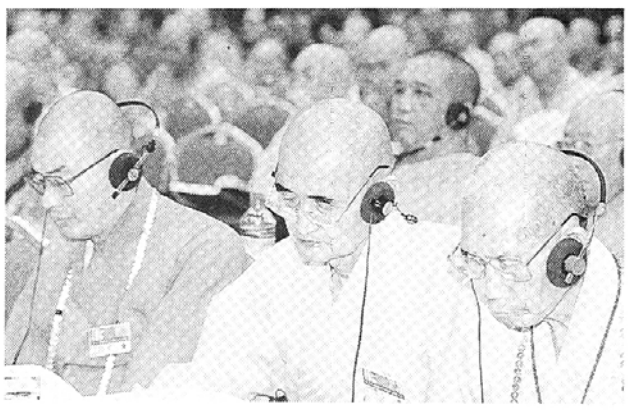
만다라 꽃 날리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 개회식에는 석주스님등 원로 대덕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만다라꽃이 날리고 법향이 식장에 가득했다(사진 위). 또한 각국 정치권의 관심도 컸다. 김영삼대통령, 중국 외교부장 전기침씨등의 축전을 띄워 서울대회에의 기대를 밝혔으며 이수성국무총리, 김영수 문체부장관,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 서석재 추미애씨등 국회의원 20여명이 방문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화보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영산재 '환희' 세계평화기원 영산재가 열린(11일) 동국대 예술극장은 부처님이 영취산에 머물며 설법하던때의 모습을 범패 바라춤 나비춤으로 재현하여 영산재에 참석한 3국의 사부대중들을 환희심으로 물들게 했다.



경청 서울대회 개회식에서 3국대표들이 기조연설을 하는동안 중국의 노스님들이 동시통역기로 경청하는 진지한 모습은 한중일 3국의 관계를 밝게했다. 좌로부터 성휘 인덕 불원스님.

해인총림의 공식입장

가야산 솔바람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법보종찰 해인사의 풍경소리는 지금쯤 그 누구와 어디서 누구를 위하여 메아리치고 있는가?

작금에 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을 앞서 밝힌 본 해인사 종무소는 일정에 맞추어 해인사의 공식입장을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해인사를 아끼는 4부대중들에게 천명하고자 한다.

그이름도 찬란한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총림 성지. 광활한 푸른잔디위를 나르는 흰 골프공을 좋아할 4부대중이 있겠는가?

그러나 학인스님들은 마치 종무소 소임자 및 어른스님들은 반대의사가 없는 것처럼 다듬어지지 않는 용어들을 구사하며 골프장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기회를 빌미삼아 학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해인사의 **종무행정에 월권적인 행위와 현체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어찌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부정한 시각으로 살면서 사회통념에 적응하지 못하고 출가한 현실적인 수행자 아닌 수행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길 없다.

그 첫째 지난 7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일행이 해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극민회의의원들은 해인사의 공식입장에 대해 매우 혼란을 준다고 하였다.

"왜 공식기구를 외면하고 **정체불명의 전화가 오며 야밤에 숙소까지 수소문하여 찾아오는지, 누가 공식 소임자이고 학인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공당인 정당이 공식기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곤 한다.

둘째 해인사 종무소는 해재 하루전날 **강원의 강주, 학감, 입승인 일경, 지산스님을 해임 및 퇴방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소임자 선거에 출마한 것은 학인으로서 해인사 종무행정을 정식으로 항명한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림설치령법에 준하여 임면권자의 공식적인 해임장도 주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부해 버렸다.

이는 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강주, 학감스님의 해임조치는 강원 소임자 학인스님들이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과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재정진중인 선원에 올라가서 선원 소임자들께 골프장건립 반대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허위로 고해 바침으로 이로인해 정진분위기가 흐트러져서 알맹이 없는 대중공사로 선원대중이 분란이 일어나서 열중스님이 쫓겨가는 현실이 벌어졌으나 학인을 가르치는 강주스님, 학무를 담당하는 학감스님은 약 25여일이 넘어도 수행자로서 공식적인 참회, 근신한번 없었다.

그에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 하였으며 당사자인 **입승인 일경, 지산스님도 함께 퇴방조치하였다.**

셋째 며칠전 교계신문을 통하여 해인사 **선원방부는 방장스님이 받으며** 다만 접수를 종무소에서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종무행정의 능력상실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주지스님이하 소임자 스님들을 퇴진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해인사 모든 종무행정을 도맡아 집행해야할 종무소가 재소임을 못하는 사이 **강원은 강원대로 방부를 마음대로 받아서 시설의 수용능력을 훨씬 넘어선 지가 오래되어 결재시 큰방공양을 방이 좁아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이 좁아 칼잠을 잔다고하여 원주실옆 객실방까지 비워주는 실정이며** 타본사 강원에서는 학인이 **고작 1~2십명 내외에** 머물러 **폐교위기에** 있다고 해인사에 항의하는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강주 및 학감스님은 **학인들의 눈치나 살피며 잘못을 해도 참회한번 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작금의 상태는 학인들이 수가 많다는 이유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이미 **학인의 신분을 넘어 현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비화돼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통탄을 금할길 없다.**

또한 이러한 해인사의 **사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학인스님들이 **증회에까지 가서 '해인사 벼랑 끝에 서다'**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마치 국내 문제를 국외로 가서 일러바치 국가간에 내정간섭이라는 용어가 나올수도 있겠금하는 이러한 행위를 보아서도 **현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어찌 강주, 학감, 일경, 지산스님등 해임조치가 골프장 문제와 결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해임조치가 마치 골프장건설 저지운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학인의 신분으로서 더 나아가 수행자의 신분으로서 수행자답고 학인다운 모습은 찾아볼수 없으며 **현체제 소임자퇴진 운동이나 전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골프장건립 반대의 지가 있는지 오히려 묻지 않을수가 없다.**

일련의 사태를 돈이켜볼 때 승가대학의 총 교육책임을 맡고 있는 강주가 해인총림 방장스님의 말씀을 항명함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파문을 야기시켰으며 방장스님의 위신과 총림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어뜨리므로 부득이 폐강과 더불어 산문출송을 결의하면서 이와같이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총림임회의원 및 산중총회와 각말사 주지스님들은 이에 적극 지지 결의한다.

1. 해인사 산내암자 및 각말사 주지스님 일동
2. 해인총림 임회의원 및 산중총회 결의일동
3. 해 인 총 림 대 중 일 동
4. 해인골프장건립 반대집행위원장 성견
5. 해 인 사 비 상 대 책 위 원 장 성 범
6. 해 인 골 프 장 건 립 반 대 대 책 위 원 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박성법

법회 안내

법왕정사(0338)71-7745

기본수련법 수련회
월~토 매일 오후1~3시
일요일 오전10시~12시

성불원(0371)762-4848

성불회원대법회 매월9일 오후6시
불공천년회 매주 수 오후6시
시창법우회 매월 첫째주
수 오후6시30분
선우가족법회 매월 첫째 셋째주
화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학생회 매주 토 오후4시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법왕사(0371)46-13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불련 매주 월 오후7시30분
청년회교리법회 매월 첫째 둘째
화 오후7시30분
군인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청년회 매주 목 오후8시
어린이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보광사(0372)43-3007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 15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거사림법회 14일(음) 오후7시

선원사(0671)31-0108

신중기도 1일~3일(음) 오전10시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미륵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청년회법회 매주 목 오후7시30분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천은정사(0342)701-0770

정기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15~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성지순례 매월 30일(음) 오전8시

금강정사(02)693-270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매월 첫째 오전10시30분

옥천사(0556)72-01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낮12시
미타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환경오염 문제 논의



월하 조계종 종정스님은 지난 3일 통도사에서 부산지역 종교·시민 단체장을 초청하여 부산 선암사의 사찰환경권 침해 문제와 대구 위천공단이 설치되는데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각(참여자치시민연합 공동대표)스님, 정영문목사(부산 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이춘기교수(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 배다지씨(민주주의 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계대화상·부의장 선출



혜암 조계종 원로회의의장스님은 17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갖고 전계대화상과 원로회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원로회의 부의장은 승찬스님의 열반으로 공석중이다.

시민단체장들과 유럽 순방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스님은 오는 18일 시민단체장들과 함께 유럽순방차 출국한다.

흥국사 주지 진산식



화범 조계종중앙종회 사무처장스님(흥국사 주지)은 20일 오전11시 남양주 흥국사에서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장미어린이집 개원



정우 구룡사주지스님은 지난 13일 서초구 서초2동에 5학급 규모의 장미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함께하는…' 팸플릿 배포



현중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획실장스님은 '함께하는 사회 자비·나눔·기쁨'이라는 제하의 홍보 팸플릿 5천부를 제작, 전국 사찰 및 사회단체등에 배포했다. 또 지난 12일 용문사에서 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도 실시했다.

소쩍새마을에 성금



선진 도솔암주지는 지난 9일 서울 예지원 문화분과일동과 소쩍새마을을 방문해 쌀과 밑반찬, 금일봉을 전달했다.

사회교육원·포교당 개원

지도 대구 자비의전화회장스님은 오는 10월10일 불교사회교육원·동화사 포교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법동사회복지관장 취임



보안 법륜사주지스님은 지난 9일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 가을호를 창간호로 계간지형태의 '법동복지소식'을 발간했다.

5사단에 수재의연금



서돈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6일 수해지역인 육군 제5사단에 수재의연금 2백만원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장묘문화…' 세미나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오후2시 동국대 90주년기념관 예술극장에서 '장묘문화, 바뀌야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송총장은 '장묘문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한다.

'대승기신론 원효소' 강의



심재열 원효사상연구소장은 지난 14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연구소강의실에서 〈대승기신론원효소〉〈십문화쟁론〉을 강의하고 있다.

충북예비역불자회 3돌 법회

권창환 충북예비역 불자연합회장은 오는 19일 오후7시 청주 관광호텔에서 창립3주년 기념 큰스님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JC특우회 문화상 수상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거행된 한국 JC특우회 주최 제20차 우정의 날에서 문화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불교 대중화와 신라문화의 보존, 유적답사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로가 인정돼 이루어졌다.



경주 나원리석탑 진신사리 재봉안

지난 3월 경주 나원리 5층석탑(국보 제39호)에서 발견됐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지난 6일 재봉안됐다. 원우스님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재봉안식에서는 새로 제작한 금동사리함에 담긴 진신사리가 나원리 5층탑 3층 옥개석 사리공에 재봉안됐으며, 나원리탑 발굴과 재봉안 과정 등을 기록한 봉안기(記)는 사리공 위에 봉안됐다.



독립기념관 만해스님 어록비 제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지난 8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만해 한용운스님 어록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석주(조계종 원로의원)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월서(조계종 초심호계원장) 법장(수덕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스님, 서석재의원(국회정각회장), 한영숙씨(만해스님 속가딸)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방 경찰청 경승실 봉불식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자우스님)은 지난 6일 경찰청 청사 15층 법당에서 봉불식 및 법요식을 봉행했다.

자우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봉불을 계기로 더욱 수행정진하는 불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우 덕화(송덕정사주지)스님과 경찰청불교회 회원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여불련 결혼상담소 현판식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지난 12일 사무실에서 '결혼상담소'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진홍스님(여불련 지도법사), 김금란 운영위원, 엄선연사업부장을 비롯 신대성, 김미자씨 등 바밀합창단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현판식에서 김묘주회장은 "참다운 불자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多寶 쌀주머니 정성 불우이웃에게"

'기쁨의 쌀 보내기' 운동 두송복지관 지현스님



"'기쁨의 쌀 보내기'는 추석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다보(多寶)'라는 쌀주머니에 모으는 운동입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은 쌀주머니를 제작,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배포해 모아진 쌀로 매월초 영구임대단지내 저소득가구 20세대에게 쌀을 보내는 운동을 추진중이다.

지현스님은 "다보(多寶)라는 이름은 우리가 모은 쌀 한알 한알이 보석보다 더 소중하며 농부의 피와 땀이 담겨있다는 것을 새기자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자들의 호응이 커 쌀주머니 1천개를 추가 제작중인 지현스님은 최저 빈곤선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하는 이웃주민들의 자활의 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의 따뜻한 온정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지현스님은 "쌀을 모으는 작은 보시행으로 다같이 중요로운 추석을 맞을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5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송찬우교수
예술상—박범훈씨
문학상—정찬주씨


◇박범훈씨


◇송찬우교수


◇정찬주씨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오는 24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학 정진관에서 제5회 행원문화상 시상 및 학술·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행원문화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3개 학술연구단체와 19명에게 총 2천9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역경상—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 △예술상—박범훈씨(국립국악단장) △문학상—정찬주씨(소설가) △학술연구비—중앙승가대학 전산원, 불교사학연구소, 불교사회문제연구소 △장학금—재현 원여 담연 보혜스님(1학기 수석자), 혜초 초인 보혜 호탄스님(2학기 수석자), 운한준군(동호공업고등학교)외 7명.

게시판

▲사진동호회회원모집=BBS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은 남·여 사진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불자로서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다. (051)644-5114

▲만해불교대학 수강생 모집=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상대)는 오는 10월7일 만해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이고 과목은 불교학 개론, 반야심경강독, 청년불교입문서 등이다. (051)862-0082

▲전화상담원모집=자비의전화(회장 성덕)는 오는 10월2일까지 상담원활동에 관심있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7-7378

▲자원봉사자모집=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불편한 노인의 수발 및 말벗이 되어줄 인심 후덕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불교기초교리강좌=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10월2일부터 3개월 과정 불교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조계사내 불교회관 1층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02)730-9108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사무실 이전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154
전화 : (053)768-8008 팩스 : (053)766-3678

▲노인한글무료교실=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11시 노인한글 무료교실을 마련한다. (032)325-2161

▲서예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오는 21일까지 서예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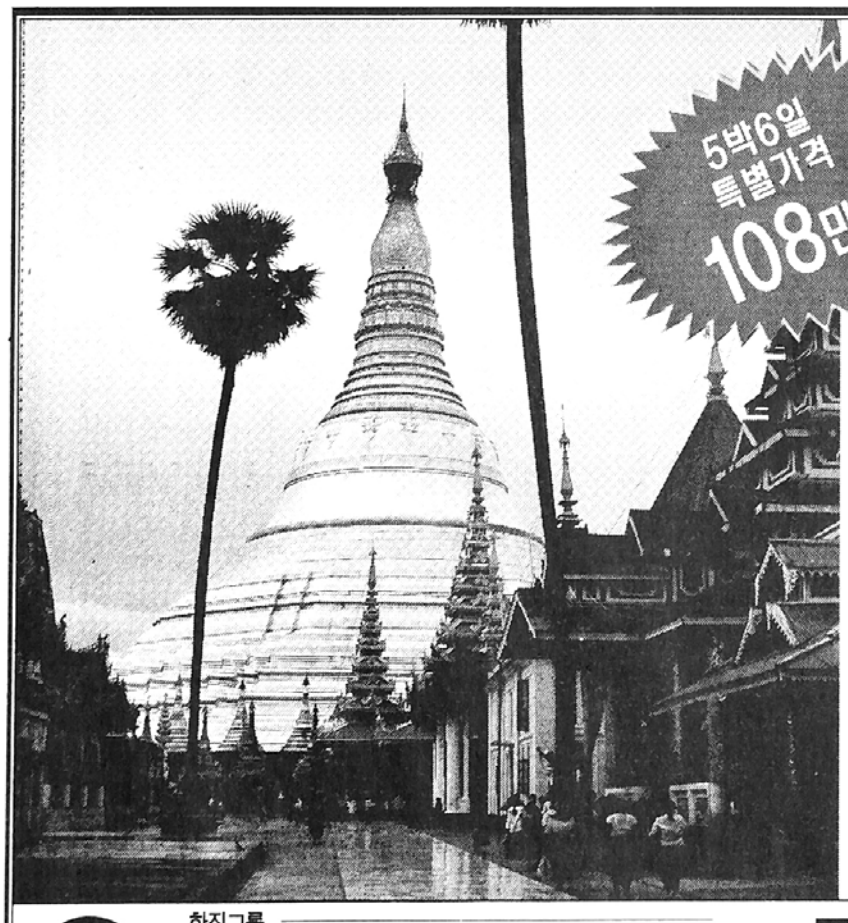
▲대불련 창립기념 산행법회=대불련 부산동문회(회장 육치담)는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산행법회를 오는 22일 파계사 성전암에서 철웅스님이 자리한 가운데 갖는다. (02)4649-2020

▲중국어 무료강의=청룡암(주지 혜조)은 10월7일~12월12일 스님들을 위한 중국어 무료강좌를 개설한다. (02)742-8120

▲자동차경정비 무료강좌=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17일 현대자동화 정비기술팀을 초빙,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경정비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 (02)421-6077

이전 대구 자비의전화가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77-13 낙원빌딩 2층으로 이전했다. (053)951-3342

KATA 광고 심의필 · 관광불전신고처리위원회 (02)779-6957



5박6일 특별가격 10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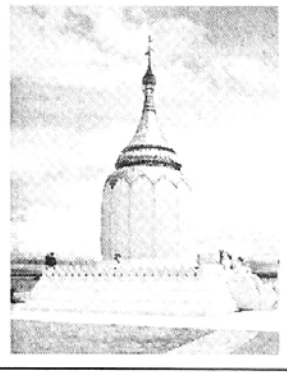
불기 2540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KAL 전세기 운항
(관계당국 승인조건)
1차:96.11.1~11.6 2차:96.11.5~11.10



부처님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로 —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비록 보화가 쌓인 산에 오를 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심의 손이 없는 사람은 삼보(불·법·승)를 만난다 할지라도 얻는것이 없으리라
- 심지관경 중에서



여행조건
1. 인원은 최소 8명(개별적 소함)
2. 왕복항공권 비즈니스석 전일본스 이용
3. 노숙 및 불순물 미포함 식은 (선택일 제공)
4. 출발일 기준일 예약마감, 15일 이전 출발
5. 최고 1일당 보험 해외여행상해 가입
6. 전문가이 제이드 동행
※ 현지요금은 제공 급등한 출발기준 요금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1일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출발 양곤 경유, 미얀마 양곤의 영글라돈 국제공항 도착 지체공항우 오찬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중-기내식, 석-현식

2일 오찬에서 아침공항우 국내선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파간 경유, 도착후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며 2,500여개의 불탑으로 조성된 유적지 순례(쉐지곤, 쉐산도, 닷반유, 아난다, 부파야, 틴로라로사원)
■HOTEL : 업급 HOTEL ■식사: 조-오찬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 오찬에서 아침공항우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도착 시가정 이동 (1시간소요) 100여개의 파고다 순례후 만달레이 귀환 쿠소도, 마하간다요수도원, 마이라무파고다 등 순례후 오찬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오찬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 오찬에서 아침공항우 항공편으로 양곤 이동, 전일 양곤지역순례 (마어위지아, 보타타웅파고다, 차욱팟지와탑, 대어시수도원) 오찬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오찬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5일 오찬에서 아침공항 오전 양곤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 순례, 오후 부처님 진신사리 전래 쟁대법회 (혜바에파고다) 및 한 미 불교대법회 후 항공편으로 서울 양발
■HOTEL : 기내박 ■식사: 조-오찬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6일 김포국제공항 도착
※ 성불하십시요

한진그룹 한진관광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예약·문의 726-5763~6

후원 ·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미얀마 종교성 / 주한미얀마대사관

부산 : 463-2115 / 대전 : 252-2034~5 / 대구 : 426-6706~8 / 광주 : 228-0041~2 / 경주 : 745-3070~3 / 제주 : 42-7217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산문밖의 선禪

예복전문가 권오수 씨



입어서 자연스런 옷 '고객만족'…"정성이 최고비법"

첫인상따라 색상·디자인 결정…컴퓨터로 재확인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

가끔 우문(愚問)이 현답(賢答)을 낳는 경우가 있다. 권오수(51세)씨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 일의 지혜를 배운다. 어느새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야 기술 배우고 솜씨 가꾸기 바빠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지만 몇 년간의 노력이 자신감을 심어 준 시점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고.

'어떻게 만들까' 화두

그런데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입는가'라는데 대한 답 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우문이 푹 삭아서 스스로 현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든 옷이 누구에게 어떻게 입혀질까, 그는 내가 만든 옷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 보일까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더구나 수작업 위주로 만드는 예복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되죠."

권씨는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 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에 맞는 옷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에 맞춘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그런 평을 들은 것은 아니다. 다만 소신껏 한 길을 열심히 걸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스스로 나태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을 뿐이다. 옷은 정직한 것이다. 고객의 몸이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한 옷은 정확히 고객의 몸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힌 부분이라도 치수가 틀리거나 바느질이 잘못되면 입는 사람이 예민하게 알아낸다. 고객보다 먼저 흠을 잡아야 하고 아예 흠을 내지 말아야 한다. 권씨는 이제 예복에 관한 한 자신이 있다. 그러나 자만하지는 않는다.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예복을 만드는 사람은 이 부담감에서 좀체로 해방될 수 없다. 쓰임의 특별함 만큼이나 보는 사람들의 안목도 남다르다. 권씨는 이런 부담감을 벗어 던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솜씨에 자만하지 않고 고객의 취향과 신체적 조건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일에서 한땀한땀의 바느질에까지 혼을 불어넣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고객을 대하면 첫 이상에서 이미 그 사람에게 어울릴 색상과 디자인의 밑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 보면 그 밑그림은 거의 들어 맞지만 그래도 새로운 개성의 발견을 위해 많은 견본을 대입시켜 봅니다. 누구에게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개성이 있는 법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보다 잘 어울리는 옷을 만드는 것이 그의 숙제다. 다시말해서 옷 만드는 일이 수행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자연스러운 옷을 만드는 것이 백척간두에 매달아 둔 화두인 셈이다. 그 화두를 풀기 위해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마음을 비워야 한다. 똑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 똑 같은 옷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설레임과 고객의 만족이라는 결과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스스로 정한 남다른 경영철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절대 에누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 값 깍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는 우리의 관습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값을 흥정하는 장사속의 분위기가 싫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이미 모든 측면을 고려해 가장 적정한 가격을 매겨 둔 것인데 에누리를 해 버리면 결국 자신의 일을 속여야 한다는 것이 싫은 것이다. 값을 깍아주면 재료나 정성의 감량도 문제지만 스스로 마음을 덜 쓸 수 있다는데서 일체의 에누리를 사절 하는 것이다.

권씨는 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 10년 전 업계와 주위 사람들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 예복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예복문화를 심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비싼 가격이 주는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도 매우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 복지의 세계적 메이커인 이태리에 직접 주문해 들여온 원단은 오히려 더 품위있고 저렴한 예복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예복의 값을 일반 맞춤 양복값과 큰 차이 없도록 함으로 그는 예복문화를 정착 시킨 것이다. 이제 그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예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혼 깃든 30년 솜씨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다양한 고객의 욕구는 그의 30년 경험을 앞선다. 그래서 올 봄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 고객의 전신 사진을 즉석에서 찍어 컴퓨터에 수록된 각양의 원단과 디자인에 대한 정보에 대입시켜 완성된 옷을 입은 고객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는 이 작업은 상당한 신뢰도를 담보해 주고 있다. 급변하는 패션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전통 수작업의 맛을 살리는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옷을 디자인 하는 것은 미술과 통하고 자연스런 선과 각을 살리며 바느질을 하는 것은 음악의 유연성과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옷은 고객에게는 옷이지만 나에게는 작품일 수 밖에 없으므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미술과 음악에도 남다른 조예를 가진 권씨는 장인정신이 없이는 한벌의 옷도 제대로 만들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색상과 디자인 선정, 재단까지의 공정에 대한 컴퓨터화로 가봉을 위한 두번 걸음을 없애기까지 부단의 노력을 기울인 권씨지만 견고하고 편안한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임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고 자신을 향해 묻는다.

임연태 기자

불경외는 것도 공부인지요

문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다만 시간나는 대로 마음을 비우고 무조건 경을 외우곤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때는 누워서 두손을 가슴에 얹고 경을 외우는 제나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되는지요?

〈김명숙·부산 사하구 당리동〉

답 어떤 경이 되었든 경을 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경을 외더라도 그 뜻을 마음으로 새기며 외어야지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왼다면 그건 '음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마다 보면 '이 경의 사구게 하나만이라도 수지독송하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입으로 하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도이지 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면 흔히들 해달라고 비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기도는 비는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부처님 자리에다 내 마음의 코드를 꽉 꽂아놓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하면 그것은 기복이나 구복이 아니라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걸 코드꽂는다고 하느냐? '나'라는 생각을 싹 빼어놓고 일체는 부처님 자리에서 한다고 믿어 일체를 놓고 맡기는 것이 코드를 꽂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자리에 코드를 꽂으려니까 도무지 형체도 없지 대상도 없지, 그냥 공에다 꽂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저 나무들이 어떻게 가지 벌리고 잎이 나게 할건가 하고 말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기에 가지도 살리고 잎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존재도 그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뿌리의 정체가 뭐냐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차차 알게 될테니까 처음엔 그저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게 우선입니다. 나는 그 뿌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꽂으려면 이렇게, '주인공, 네가 나의 근본이니까 일체를 네게 맡긴다' 하고 그냥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는 의식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고 그래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기도만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안으로 내 참 성품에 드리는 경배일 때에 기도의 공덕이 있는 것이지 밖으로 부처님을 세워놓고 하는 기도는 평생을 해도 기도가 아닙니다.

안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한 자세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기도는 항상 숙연하고 겸허하고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무치는 마음이어야 불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이 마음도리는 그렇게 탁 터진 길입니다. 스님들이 이 공부 하라고 하고 애써 가르치는 것은 사방이 탁 터지고, 우주 전체가 다 요 손, 부처님 손 안에 있으니 별에 별 일 다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 하시려면 첫째 믿어야 하고…, 뭘 믿느냐? 그렇게 탁 터지고 한 생각에 전체를 살리는 법이라는 걸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둘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49재때 스님 오시지 않아 섭섭…

문 얼마전 제 남편의 49재를 지냈습니다. 그때 한 대덕스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좀 섭섭했습니다. 제 남편이 좋은 길로 가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스님께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장호순·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답 스님이 안오셔서 좋은데로 갔을지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데 이 육신이야 고기덩어리 같은 것이고 집 같고 차 같은 것 아닙니까? 차는 안왔어도 운전수만 다녀갔노라 하면 어쩌시렵니까? 운전수만 가면 됐지 이 차 안끌고 간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안다녀갔다고 하는건 보살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이니 못본 것은 보살님 탓이지요?

굳게 믿는 한 생각이 전체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자성불을 믿지 못하니까 남도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요. 또 좋은 데로 간 건 당연하지 뭘 걱정이십니까? 한 찰나가 대문 밖이고 한 찰나가 대문 안입니다. 그러니 뭘 걱정입니까? 강이 깊어 빠질까 걱정입니까? 산이 높아 넘질 못할까 걱정입니까? 길이 멀어서 힘이 들까 걱정입니까?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직장동료와 사이가 불편합니다

문 회사원입니다. 직장동료 중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근무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다 말을 하자니 그럴 사정도 못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용준·서울 은평구 갈현동〉

답 세상 모든 일이 다 내가 있음으로써 벌어졌습니다. 내가 없다면 우주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도 회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게 내탓이란 말입니다. 나 있고 세상 벌어졌으니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밉게 보일 때는 이렇게 한 생각 돌려보세요. "아, 저것도 내가 몰랐던 때의 내 모습이지. 모든게 내탓이지"하고 말입니다. 누구나 수억겁 거쳐오면서 오늘에 사람 몸 받고 태어나 살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는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 못났을 때, 나 몰랐을 때의 모습과 그 모습이 다를게 없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거든 주인공 자리에 놓고 지켜보도록 하세요.

불교·영어·서예

Ⅰ. 불교 교리 강좌
- 법문: 무진장 스님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대상: 일반 신도
- 내용: 불교 교리 강의(교재 무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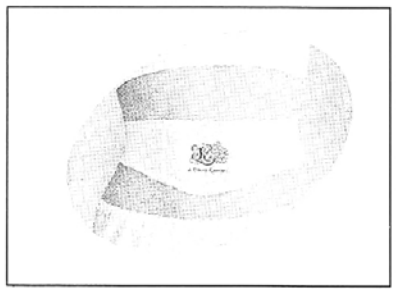
Ⅱ. 영어 불교 교리 강좌
- 강사 : 현각 스님(미국 출신)
  - 예일대 졸업(서양철학 전공)
  - 하바드대학원 불교학 전공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개강
- 대상 : 불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내용 : The life and teaching Buddha (수강료 및 교재등 무료)

Ⅲ. 서예·한문 강좌
- 강사 : 법공 스님
- 일시 : 매주 화, 수, 목요일 10:00~15:00
- 대상 : 불자인 모든 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전화: 517-3052,515-9604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심종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잠 듭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 서울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윤회' 연구단체 활동 눈길

근래들어 전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윤회'를 학문적·과학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들 단체들이 바라보는 윤회는 불교의 시각과는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일치점을 갖고 있다.

신지학협·정신과학회·미내사등 세미나 통해 과학적 규명 노력

'업보다 진화 비중' 미래지향적 시각

한명우 기자

한국을 비롯 세계 1백53개국에 단체를 둔 '신지학(神知學)협회'는 오래전부터 '진화윤회론'에 바탕을 두고 윤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진화윤회론'은 다음 생에서는 현생보다 하등한 형태로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인간의 진화를 뜻하며, 이와 함께 문명도 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만물의 윤회는 진화를 위한 윤회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신지학협회는 출판사업과 각종 강의를 통해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약칭 미내사)의 모임은 정신과 과학의 합일점을 찾아 밝은 문명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일반인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 이들 역시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 측면을 배제한 전생과 윤회연구를 통해 정신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계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94년 창립된 '한국정신과학회'는 물리·화학·전자공학 등 과학도들이 중심이 돼 윤회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 전통사상·시공간 기과학·생체 기과학·잠재능력계발 등 4개분과로 나눠 학술대회 및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및 소식지 발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백40여명의 회원중 현직 대학교수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과학회는 임사(臨死)체험 등의 사례와 각종 연구를 통해 윤회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역시 윤회는 진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과학적 입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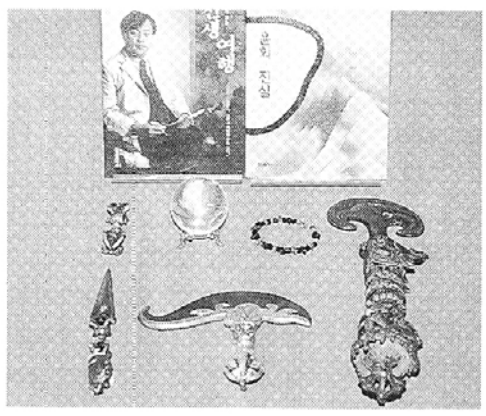
이외에도 컴퓨터통신에서는 1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정신과학동호회가 윤회와 전생 등에 대한 의사교환과 개인적 탐구에 문을 열어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천리안 go jf, 하이텔 go js, 나우누리 go jf).

물론 이들과 불교간의 '윤회관'은 '진화론적 윤회'와 '육도윤회'라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불교가 업에 의한 윤회를 설하는 반면 이들은 업을 개의치 않는다. 즉 업의 개념의 유무에 의한 차이인 것이다. 반면 이들의 윤회관이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윤회'를 해탈과 성불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불교의 '윤회관' 모두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그동안 일반에게 막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윤회'를 학문적·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객관화하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한국정신과학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석 교수(상명대 중문과)는 "더 나은 세계로 또는 자금보다 더 하위의 세계로도 윤회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적 윤회관이라면, 우리의 윤회관은 우주운동이 나선형적이듯이 윤회를 발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진스님(동국대 교수)은 윤회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종교적·정신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불교의 윤회는 업사상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불교의 윤회관을 설명하면서 "비록 관점이 다르긴 하나 새로운 이론으로 상호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진화윤회론'을 주장하며 윤회를 학문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사진은 수정구서적 등 요즘 잘나가고 있는 전생관련 용품).

美·加서도 큰 관심

내생 확신「사자의 서」비디오 인기

전생·내생·환생 등의 주제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93년 '죽음, 심판 그리고 내생'이라는 미국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5%가 내생을 믿고, 25%가 환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이 '사자(死者)의 서'(총2권)라는 비디오에 보인 폭넓은 관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자의 서'는 티벳불교의 외경인 '발도 토드롤(Bardo Thodrol)'을 기초로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와 NHK(일본)가 제작하고 레너드 코헨(랩아티스트, 미국)이 나레이터를 담당한 영상물. 또 삼발라선(미국) 5월호에는 '사후에 생기는 일'이라는 기획을 마련해 콜롬비아대학 종교학회 로버트 투르만 회장의 의견을 실었다. 여기에서 투르만씨는 "불교·힌두교·기독교는 전생·내생·환생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기독교는 영혼의 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불교는 영혼의 변화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도 열풍

부다넷·베단타센타 등 환생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에서도 '환생'에 대한 관심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다넷'(http://www2.hawkesbury.uws.edu/BuddhaNet/)에서는 '환생에 관한 의문점'이란 메뉴를 만들고, 다윈·스트룸버그(스웨덴) 등이 각각 '진화와 윤리' '기억의 불멸이론' 등의 연구서를 통해 "인간은 죽지만 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두 과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의 신화와 상징'(http://www.bdt.com/home/budryerson/)에서는 '환생의 수레바퀴'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생명의 죽음은 크리타·트레타·드바파라·카리라는 각기 분리된 원 속에서 환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베단타센타(http://www.sivananda.org/yogalife/)에서는 시바난다(요가수행승, 인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환생과 윤회' '윤회의 법칙' 등에 관한 글을 등재하고 있다. 〈욱〉

전생관련용품 '불티'

수정반지·목걸이·금강저 구입 붐

최근 '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생관련 용품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전생용품들이 출시된 것은 오래됐지만 최근 사회전반에 전생에 대한 붐이 일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

이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은 수정제품. 수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생과 통하는 채널로 사용돼 왔고 자신의 전생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생투시용 용품이 아니더라도 수정팔찌, 수정목걸이, 수정반지, 뿔수정구, 수정으로 만든 피라밋 등 각종 수정제품도 인기가 높다. 이밖에도 명상을 돕는 티벳용 '간타', 2개의 종이 부딪쳐 소리를 내는 '띵샤', '챠임', 금강저 등도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붐에 대해 종광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은 "전생관련 용품을 찾기보다는 부처님의 근본사상인 윤회관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



◇법산스님 ◇현각스님 ◇보광스님 ◇계환스님 ◇홍윤식박사

한국 불교사상 집중 소개

보광스님 천수경 한국풍토 맞게 쓴 '위경'
원효 범부들에 산란심관 지도 현각스님
계환스님 일연스님 통불교신앙과 상통

日 인도학 불교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10여개국 2백50여 스님·학자들이 모여 지난 5~6일 일본 입정대(立正大)에서 개최된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주최 제47회 국제학술회의는 동국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측 발제자들이 한국불교를 자세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법산스님(동대 정각원장)은 '한국선원생활의 연구'에서 한국의 선(禪)은 사조도신(四祖道信) 이후 혜능계(系)의 남종선과 오종가풍(五宗家風)이 모두 전래돼 한국선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선이 화두를 참구한다고 해 임제종풍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조계종이란 '육조혜능계(系)의 선종'이라는 의미이나 오종선가(五宗禪家)의 어느 곳에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각스님(선학과)은 '원효의 쟁관법(諍觀法)' 주제발표에서 원효스님의 수행관은 산란심중의 염불선관이며, 이는 범부위주의 정토교학이라고 주장했다. 쟁관법이란 징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산란심관은 쟁관법에 의한 수행법. 현각스님은 삼국유사 제5권 광덕 엄장의 설화를 예로 들어 원효가 모든 범부들도 수행이 가능한 산란심관을 알기 쉽게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보광스님(선학과)은 '한반도에서 제작된 의위경(疑僞經·佛說이란 이름을 빌려 후대에 만든 경전)에 대하여'에서 신라시대의 〈금강삼매경〉, 고려시대의 〈현행서방경〉, 조선시대의 〈염불인유경〉, 최근세의 〈천수경〉 등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의위경이라고 주장했다.

보광스님은 먼저 〈금강삼매경〉은 대안스님이 찬술한 것이며, 〈현행서방경〉은 정토신앙의 방법을 도입해 만든 위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염불인유경〉은 근세에 보조스님의 이름이 가탁된 것이며, 근세에 만들어진 〈천수경〉은 한국적인 불교신앙의 풍토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경전의 형태로 발전했을뿐, 현존본은 편찬된지 1백여년 밖에 안된 위경이라고 설명했다.

계환스님(불교학과)은 '보각국존 일연의 불교관'에서 일연스님은 불교의 여러 신앙을 고루 섭렵한 종합적 불교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원효스님의 통불교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1백여권의 일연스님 저서중 현존하는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의 내용을 예로 든 스님은 원효스님이 이들 설화를 통해 불교적 신앙심을 고취시키려 했으며, 여기에는 화엄·관음·정토·미륵·불국토신앙 등이 고루 묘사돼 있다는 설명이다.

홍윤식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는 '한국사원의 구조적 특징과 그 문화'에서 한국의 사찰구조와 일본의 사찰구조를 사상적 측면에서 조명했다. 〈우〉



中서 반입 北미륵반가상 진위 논란

삼국시대 작품 추정 어려워… 정밀감정 필요

지난 6월 북한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사진)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최근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반가상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높이 16.2㎝의 이 반가상은 김정웅씨(한국미술경매 대표)가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북한에서 공사도중 우연히 발견돼 중개인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 반입되면서 관계전문가들의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명대교수(동국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옷주름, 얼굴모습, 목선 등이 삼국시대 것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 진위를 확신할 수 없다"며 "확실한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윤식교수(동국대)도 "과거 우리나라에 반입된 북한 문화재중 진품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硏 '한국범종사보고서' 10월 출간

25년연구 집대성… 학계 첫 개론서

신라~조선 178구 조사, 사진·참고문헌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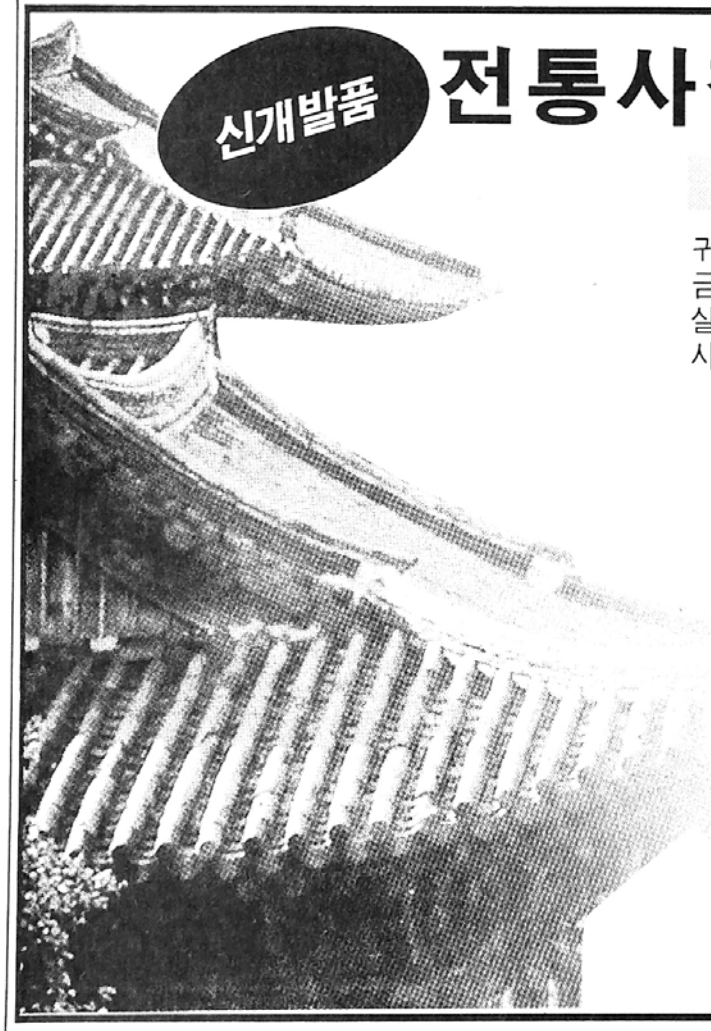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오는 10월말 한국범종에 관한 방대한 연구보고서인 〈한국범종사보고서〉(가칭)를 출간한다.

이 보고서는 신라~조선시대에 걸쳐 국내범종 및 일본소장 신라 범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와 그동안의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함께 집대성한 학계 최초의 개설서다.

보고서는 모두 178구에 달하는 한국범종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포함해 제원과 양식, 형태상의 특징과 변천사를 담고 있다.

국배판 45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특히 140여점의 사진도판과 수백여편에 달하는 참고문헌이 함께 수록돼 범종연구의 기초자료로 손색이 없도록 꾸며져 있다.

기초조사는 이호관씨(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와 조유전씨(국립민속박물관장)가 문화재연구소 재직시절인 71년부터 74년까지 4년여간 현지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이호관씨가 20여년동안 모은 연구자료를 더해 보고서를 펴내게 됐다.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무거운 흙기와에서 천년가람을 가람동기와가 보호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철주야 불음을 전하시는 스님들께 합장 향배 올립니다.
금번 가람 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미를 되살린 가람 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니다.

불기 2540년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30장씩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 가람의 변형을 막을수 있습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적동색에서 갈색→ 암갈색 →흑갈색→ 녹청색으로 변하여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 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가람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 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는 전부분 공정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 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02)720-5121

"우주전체 풀어야할 화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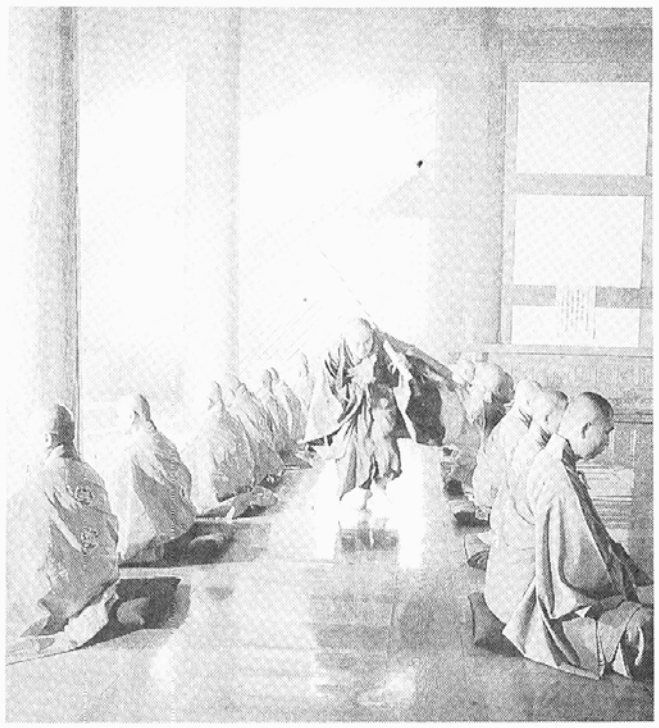
禪불교 ②

깨달음을 통한 자아발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사들은 가끔 화두 대신 거친 방법을 썼다. 한번은 수로화상이 마조(馬祖)를 방문하여 물었다. "달마조사가 서방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대답 대신 마조는 그에게 절을 하라고 명했다. 수로가 몸을 숙이자마자 마조는 그를 짓밟았다. 이상하게도 수로는 당장에 깨닫게 되었다. 일어나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수백 수천의 삼매(三昧)와 무량한 묘의(妙義)가 한 터럭 끝에 그 근원을 두고 있구나!" 그는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수로는 후에 방장이 되고 난 후 가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조가 나를 짓밟은 후, 나는 줄곧 웃고 있다."

다른 선사들도 할(喝:고함소리)이나 방(棒:방망이) 등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덕산(德山)은 깨닫기 전에, 용담(龍潭) 선사가 있는 절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선사가 좌정하고 있던 덕산에게 말하였다. "밤이 깊었는데 어찌 물러가 쉬지 않는가?" 덕산은 인사를 드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곧 다시 돌아와서 말하였다. "밖이 너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선사는 호롱불을 켜서 그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나 덕산이 막 호롱불을 받으려하자 선사는 갑자기 불을 훅 불어 꺼버렸다. 이 순간에 덕산은 문득 깨달았고 스승에게 예배하였다.

선불교는 기독교나 이슬람 신비주의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단에 불과한 논리적 도식(圖式)을 믿지 않는다. 수십권의 '신학대전'도 진리에 대한 구체적 체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감각을 통한 인식보다는 직관적 인식을 더 선호한다. 셋째, 논리적 갑론을박을 초월하여 결정적 확신을 안겨주는 절대지(絶對智)를 추구한다. 이것을 파악한 사람은 전제(前提)나 결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는 현 단계에서의 사물들의 대립관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모두 통합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따라서 세속적인 도덕윤리관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성 어거스틴이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리라"고 말한 것은, 깊은 사랑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할 수 없으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넷째, 에고의 소멸을 말한다. 과거의 개인적 삶은 전체 속으로 용해되고 그때 평화와 법열(法悅)이 보상처럼 따라온다. 다섯째, 자아와 삼라만상이 모두 일체감을 가진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다.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보고, 들꽃 속에서 하늘을 본다. 너의 손바닥 안에 무한(無限, infinity)이 있으며, 찰라 속에 영원이 깃든다." 여섯째,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이 종교들 사이의 차이점도 크다. 불교는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선불교에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유태교와 그 지파인 기독교와 이슬람에서와는 달리, 선불교에는 죄와 참회 그리고 용서라는 감상적인 개념들이 존재치 않는다. 깨달음은 기도와 두려움,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속죄 등에 의해 얻어지지 않는다. 덕산선사는 결코 기도하지도 않았고, 죄의 사함을 빌지도 않았으며, 불상(佛像)을 숭배하지도 않았다. 그는 경전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빌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에 그런 행위들은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깨달음을 향한 꾸준하고 집중적인 노력이었다.



◇내적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선불교는 그 가르침이 전해진 사회의 일상생활과 꽃꽂이·검술·궁술은 물론 다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꽃봉오리 열리듯 얻는 깨달음
지적 이해보다 체험·직관 중시
역대선사 고함·방망이 충격요법 활용
日서 다도·꽃꽂이등 생활禪 정착

대혜(大慧)선사는 깨달음을 막 꺼지려는 촛불이나 우리 목에 댄 칼날로 비유했다. 이 우주 전체가 우리가 풀어야 할 생생한 화두이다. 모든 화두는 사실 우주라는 큰 화두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부분은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일중일체(一中一切)요, 다중일(多中一)이다. 작은 화두 하나가 풀리면, 우주 전체가 드러난다.

불교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적 깨달음의 무아경(無我境)이다. 인도에서 흔히 쓰는 여행자의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 피곤하고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샘이 있는 곳의 길을 일러주었다. 그러나 길을 아는 것은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샘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사막은 생사로 가득찬 속세이고, 목마른 여행자는 우리 모두이며, 길을 가리켜 준 자는 부처님이고, 샘은 열반(니르바나)이다.

불교는 언어와 변론을 믿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붓다는 초기 설법에서, 화살에 맞은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화살에 맞은 이유가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불교는 이 가르침에 충실하여 모든 의례와 논리와 사변에 앞서 정각(正覺)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갑자기 열린 꽃봉오리에 흔히 비유되는 깨달음이야말로 선의 시작이자 끝이다.

선(禪)은 그 가르침이 퍼졌던 사회의 일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건축, 시, 회화, 서도 등 많은 예술이 선미(禪味)를 담고있다. 신중한 생략과 암시가 그 생명이다. 동양화의 여백미와 일본의 단시(短詩) 하이쿠(俳句)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하이쿠는 5·7·5조의 단시이다.

바람에 너울대는/풀잎끝 이슬방울/덧없는 인생

인형가게에 들린/자식없는 부인/만지작 만지작 인형을 못놓네

강물에 출렁이는/살구꽃·그림자/떠내려가진 않네

난간에 기대어/가을달을 바라보니/내 본래 얼굴이로다

검술과 궁술의 고된 수련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흔히 정신수양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 숙련된 궁사는 어둠속에서도 정확히 과녁을 맞춘다. 그는 정신적 안정을 통해 어둠을 꿰뚫는 심안(心眼)을 터득한 것이다.

생활속의 선불교는 일본에서 토착화되면서 일본예술혼의 기저를 이루었다. 불교의 유입과 함께 꽃꽂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사원에서 의식(儀式)으로 시작된 꽃꽂이는 후에 민간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꽃꽂이의 미학은 기묘한 불균형을 이루는 디자인 형태에 달려있다. 그것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징하는 세 요소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꽃꽂이 하는 사람의 신앙적 정성이 깃들면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된다.

일본식 정원도 유명하다. 작은 공간에 바위와 관목 그리고 물로 자연스러움을 창조한다.

다도(茶道) 또한 선불교적 정서의 산물이다. 차를 마시는 일상의 작은 행위도 생의 오묘한 이면을 드러내고 고양시키는 신성한 종교적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황경환 〈국제 피플투피플 한국본부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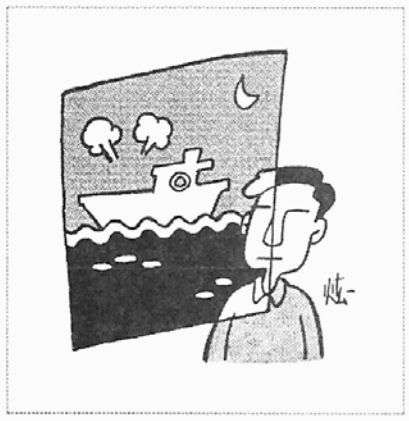
"절박한 순간에 부른 관세음보살"

아버지의 구사일생 체험담 내 믿음의 씨앗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내 생활의 밑바닥에는 아버님의 절박한 체험담이 있다. 해방전에 일본에서 기술자로 오래 사셨던 아버지는 해방조국에 와서 많은 돈을 사기당하고 작은 동력선으로 고기잡이를 하기도 했고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어려운 시대에 살기 바쁜 고단한 삶이었던 셈이다.

아버지는 무슨 경전을 공부 했다거나 절에 꼬박꼬박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다. 어머니 역시 이름 있는 날에나 불공을 올리러 절을 찾아 갈 뿐 우리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신 적은 없었다. 그래도 두 분의 삶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특히 절박한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을 불러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아버지의 얘기는 수백번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왔다. 그 경외의 체험담이 나를 불자가 될 수 밖에 없도록 결정지었던 것 같다. 어린시절 아버님의 무릎에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고 내 생활의 중요한 지침이다.

아버님은 장사꾼들의 짐을 실어다 주는 작은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실을 아버지가 맡고 매형이 선장을 맡아 제법 밥 먹고 살만큼 일을 했다.



어느날 건장한 중년 두 사람이 방어진에서 부산까지 짐을 실어 달라고 청해왔다. 날도 저물고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거절할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운임을 많이 주겠다고해 배를 띄웠다. 아버지는 사위에게 "저 사람들이 수상하니 잘 살피라"고 말한 뒤 동력실로 내려갔고 매형은 선상에서 창솔(배의 키)을 잡았다. 5시간 이상이 걸리는 께름칙스런 항해의 절반 이상이 지났을때 아버지는 선상에서 들리는 천둥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예감이 좋지 않아 배위로 올라가 보니 얼굴에 피가 낭자한 매형과 한 사람이 서로 엉켜 격투를 벌이다가 바다로 떨어졌다. 나머지 한 사내가 아버지와 맞붙어 싸웠고 두 사람도 바다로 떨어졌다.

네 사람은 바다로 떨어졌고 동력을 끊지 않은 배는 혼자 물살을 갈랐다. 다행히 매형이 청솔을 발로 걷어 차 버린 탓에 배는 전진하지 않고 원을 그리며 돌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헤엄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바다에서 몹시 고생을 해야 했다. 빈 배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 아버지는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고 오직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했다는 것이다. 평소 수영을 못하는 아버지는 만약을 대비해 배 뒷쪽에 로프를 늘여뜨려 두었는데 관음보살을 한참 부르며 허우적거리다 그 로프 생각이 났고 그 순간 다시 바다 속 깊이 빠져들어 갔다 떠 올랐다. 그런데 다시 떠 오르며 통대나무 토막이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정신을 가다듬었고 그 순간 아스라한 어떤 소리도 들었다.

"장인어른 살았심더!" 그 소리는 매형이 부르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배 뒷전의 줄을 잡고 배위로 올라가 숨을 몰아 쉬고 난 후에야 매형은 얼굴에 총알이 박혀 있음을 알았다. 범인 중의 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배위로 기어 올랐다. 아버지는 관세음보살이 살려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 그를 끌어 올렸다. 그는 이발사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자고 꼬여서 동행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산까지 가자고 했지만 일본이 목적지였고 배에서 아버지와 매형을 처치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신나고 한편으로 아찔하기 그지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 어른이 된 어느날 나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그 전설같은 감동을 현실적 수행체험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설령 큰 불에 들어 갈 지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엄과 신비로운 힘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며 만약 큰 물에 빠지는 바가 될지라도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물을 얻으며…."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9월 30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증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Ⅱ
연구과정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⑬

② 百丈老人有一天上堂下座後
백장로인유일천상당하좌후
各人都已散去 獨有一位老人沒有離跑
각인도이산거 독유일위로인몰유포
百丈問 他作甚麼
백장문 타작심마
他說 我不是人 實是野狐精
타설 아불시인 실시야호정
前生本是 這寺的堂頭
전생본시 저리적당두
因有箇學人問我 大修行人還落因果否
인유개학인문아 대수행인환락인과부

② 백장 노사가 하루는 법상에 올라 법을 설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 갔어도 오직 한 노인이 머뭇거리고 있었다.
백장이 묻기를, 그대는 뭣하는가? 노인-나는 본시 사람이 아니고 여우인데
전생에는 이곳의 당두(조실)이었다.
어느때 학인이 묻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도리어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닙니까? 하기에

使用亡僧禮 將他和葬
변용망승례 장타화장

백장이 대답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얽매이지 않는다).
노인은 언하에 크게 깨달았다.
곧 예를 갖춰 절하고서는, 이제 화상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우 탈을 벗어났으니
뒷산 바위 아래 내 몸이 있을 것인즉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승가의 법도에 따라 장례를 치뤄주십시요 하였다.
다음날 백장은 뒷산 바위 아래서 한 마리 죽은 여우를 찾아내
승가의 예법대로 장례를 치루었다.

我聞聽了這兩段故事 便確知 因果可畏
아문청료저양단고사 변확지 인과가외
雖成佛也難免頭痛之報
수성불야난면두통지보
報應絲毫不爽 定業實在難逃
보응사호불상 정업실재난도
我們宜時加警惕 愼勿造因
아문의시가경탕 신물조인

"과보 상응 터럭만큼도 어긋나지 않으니 때마다 삼가하여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我說 不落因果 便因此墮落
아설 불락인과 변인차타락
住了五百年野狐精 沒法脫身
주료오백년야호정 몰법탈신
請和尙慈悲開示
청화상자비개시
百丈說 汝來問我
백장설 이래문아
那老人便道 請問和尙 大修行人還落因果否
나로인편도 청문화상 대수행인환락인과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그 때문에 굴러떨어져
오백년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청컨대 화상께서 자비로 법을 설해주소서.
백장-그대가 내게 물어보라.
이 노인이 화상께 물었다. 대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百丈答道 不昧因果 那老人言下大悟
백장답도 불매인과 나로인언하대오
即禮謝道 今承和尙代語 令我超脫孤身
즉례사도 금승화상대어 령아초탈호신
我在後山巖下 感和尙以亡僧禮送
아재후산암하 기화상이망승례송
第二天 百丈在後山石縫以杖撥出 一頭
제이천 백장재후산석암이장발출 일두
死狐
사호

우리들은 이 두가지 고사를 듣고 문득 인과가 가히 두려움을 확실히 알았다.
비록 부처가 되어서도 두통의 과보를 면키 어렵다.
과보의 상응함은 터럭만큼도 어긋나지 않으니 정해진 업은 실로 피할 수 없다.
우리들은 때마다 가히 두려워하고 삼가여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用功辦道 首要持戒 戒是無上菩提之本
용공판도 수요지계 계시무상보리지본
因戒才可以生定 因定才可以發慧
인계재가이생정 인정재가이발혜
若不持戒而修行 無有是處
약부지계이수행 무유시처
楞嚴經 四種清淨明誨 告訴我們
능엄경 사종청정명회 고소아문
不持戒而修三昧者 應不可出
부지계이수삼매자 진불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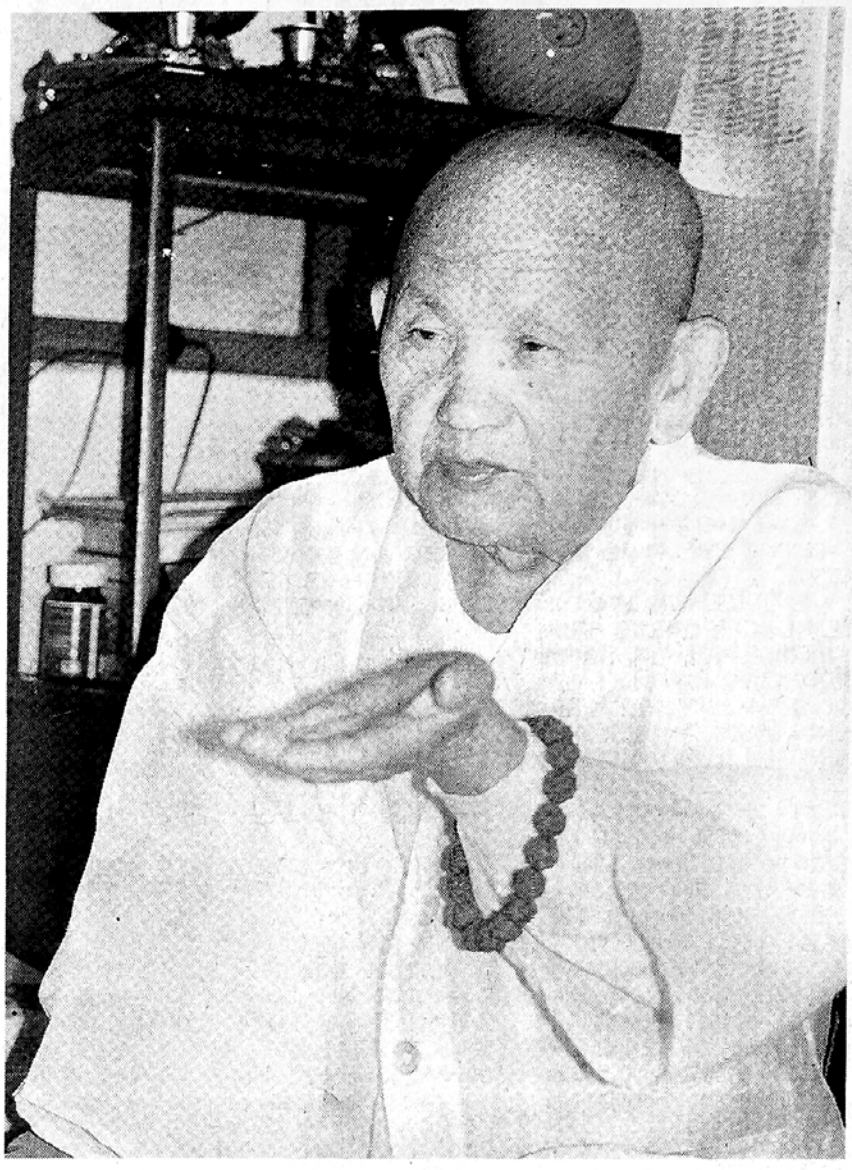
애써 수행하여 도를 이룸에는 계를 지킴이 으뜸이다. 계율은 위없는 깨달음의 근본이다.
계로 인해 가히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 가히 혜가 나타난다.
만약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한다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능엄경〉에서 네가지 청정을 명백히 밝혀 우리들에게 고하고 있으니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는다 해도 번뇌를 벗어 날 수는 없다.

龍眼

지상법석

"지혜 신통 얻으려면

원상스님 〈송가사 회주〉



약력
- 1913년 경기도 가평 生
- 30년 삼각산 승가사서 심월화상 은사로 득도
- 봉은사 신원사 등서 사미 사집 사교 대교 이력 마침
- 43년 중국 연변 장춘 하얼빈 등서 만행
- 70년 태고종 창종공로패 수상
- 92년 호명산 감로사서 20하안거 성만

내 나이가 올해로 여든 넷인데 참 부끄럽고 덧없군요. 부처님은 여든해를 살다 가셨는데 나는 그 보다 4년을 더 살았어도 아무 가치 있는 일을 못했어요. 이 늙은 몸이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몸이란 것은 자꾸자꾸 갈아 입는 옷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살기를 몇해 살았느냐가 그리 중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이 영원 불멸의 영혼을 위해 다음 옷을 어떤 걸로 준비 했느냐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난득 남생난득 불법난득'이란 말도 있지만 인간의 몸을 받았어도 축생의 업을 지었으면 다음 생의 옷은 축생이고 축생의 몸을 받았어도 인간될 업을 지으면 다음생의 옷은 인간이란 것이 윤회의 이치 아닙니까. 이 몸은 헛것입니다. 다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영혼은 있으니 그를 바로 아는 일이 우리의 숙업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 정신등으로 말하기도 하는 그놈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마음이라 해도 그 본래 면목이 아니고 영혼도 정신도 다 그 이름일 뿐이지 그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성(自性)이라 말 하는 것도 마찬 가지 입니다. 이름이

인간 몸 받았어도
축생 될 업 지으면
다음 생은 축생이고
축생 몸 받았어도
인간될 업지으면
다음생은 인간

무엇이건 그건 중요할 것이 없지요. 다만 그놈의 실상을 알아내는 일이 절박할 뿐입니다. 그 절박한 숙제를 풀기 위해 불교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지혜와 신통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과 제불보살은 지혜와 신통의 선생님들입니다. 지혜는 우주법계의 근본이 되는 자성을 아는 것이고 신통은 그 지혜를 통해 우주법계를 살피고 누리는 즐거움의 행(行)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일뿐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인이 지극한 지혜를 얻으면 신통의 경지에 이르러 십만억 국토의 모든 모습을 두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만억 국토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에는 이 사바계보다 험난한 곳도 있을 것이고 더 아름다운 곳도 있을 것이지만 지혜의 마음으로 그 세계를 관하면 미추의 분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십만억 국토가 하나로 보이고 하나 속에 십만억 국토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지혜를 증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수행정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얻길 원한다면 내가 아미타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서원을 세워야 하고 다음으로 아미타불의 행을 하면 됩니다. 내 몸안에 이미 제불보살의 모습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미타불을 원하면 아미타불이 될 수 있고 문수보살을 원하면 문수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고 그 행을 받들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중생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동이 지극한 원행(願行)일때 착실한 과보를 받아 불보살의 길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극락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업이 불법을 닦은 이의 원행이 아니면 극락에 머무는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원행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의 가르침과 서원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원력을 갖춰야 합니다. 원력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원행은 그 믿음의 실천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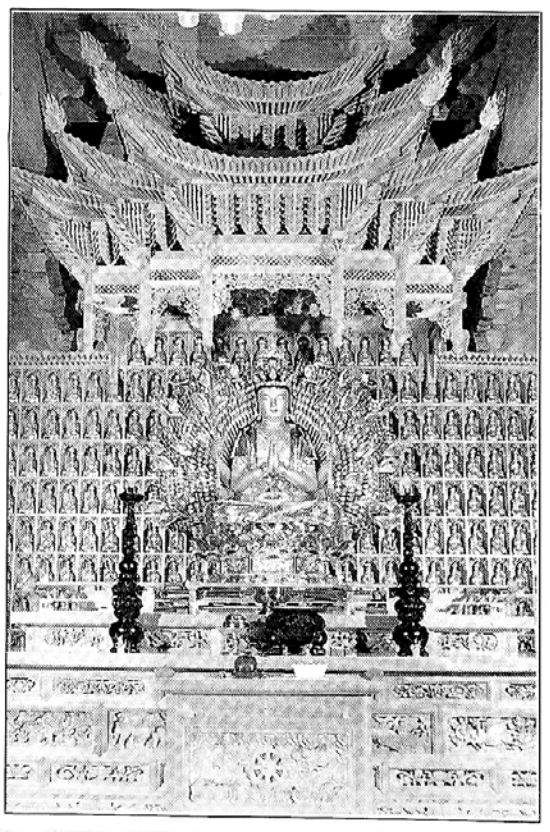
이 나이든 남자에게도 큰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서원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질겁을 하기 일쑤여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몸을 벗고자 하는데 그냥 눕거나 앉아서 죽음을 맞아 옷을 벗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몸에 불을 당겨 이 육신의 허상을 태움으로써 부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갚을까 합니다. 화마의 고통은 잠시이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는 즐거움은 영원할 것이니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제23'에 희견보살께서 일월정명덕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 정진 할 때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증득하고 육신으로 공양함을 서원하여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끼얹고 스스로 그 몸을 태워 공양 올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지상법석

불보살행 따라합시다”

“내 몸안에 제불보살 모습 있으니 온 마음 모아 명호부르고 그 행을 그대로 받들어 행하면 아미타불도 문수보살도 될 수 있어요”

방편에 속고 목적에 욕심내면 항상 중생자리 願行으로 무량공덕 쌓으면 그곳이 극락정토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 대목을 읽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고 내 몸도 소신공양(燒身供養)하리라 서원을 세웠습니다. 소신공양의 목적이 이 몸의 허상을 버리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견보살의 서원처럼 불은에 보답하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과 병환을 여의고 나고 죽는 일의 얽힘으로부터 벗어나 무생법인을 증득하길 염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신의 원을 세운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여기에 이르렀지만 그 원을 실천 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다만 나 스스로 그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날이 갈수록 무서운 생각도 줄어들고 조금씩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신을 할 만큼의 근기를 키우는 일이 나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호명산에 감로암을 짓고 좌선정진 해온 것이나 서방극락교주 아미타부처님을 염불하고 관하는 것이 모두 내 서원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수행인 것입니다.

특히 나는 〈관무량수경〉의 6관법 중 제1관인 일상관(日想觀)을 참구해 왔습니다. 일상관의 참구를 두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서쪽을 생각하라.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지는 해를 똑똑히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는 해가 마치 서쪽하늘에 매달아 둔 북(鼓)과 같음을 보도록 하라.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모습이 한결같이 보이도록 하라.”

내가 소신공양의 원을 공개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나 혼자 몰래 하다가 산불이라도 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여년전 개운사에서 한 노스님이 칠성각 앞에 장작을 쌓아 놓고 소신을 했는데 손상좌가 급히 노스님을 끌어내려 원을 이루지 못하고 화상만 입는 모습을 보았기에 혹 나도 생각지 못한 방해를 받을까 염려 됩니다. 또 소신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다시 다비를 해야 하니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신공양을 공개하여 내 간절한 서원이 이뤄져 불보살님 은혜를 갚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태워 공양함으로 수 많은 중생들이 기쁨을 얻고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고 사회도 안녕하고 헐벗고 괴로운 사람이 없어질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뜻을 모르고 상좌들이나 신도님들이 자꾸 말려서 큰 일입니다. 그래도 나는 서원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혼자라도 이루고 말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내 행동이 가당치 않은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누구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만약 단한번 아미타불을 생각만 해도 팔십억겁 동안 지은 무거운 죄가 능히 소멸된다 했습니다. 간절히 부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부처님을 부르는 사이사이에 우리도 부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백명이 앉아 참선을 하여 한사람 득도하기는 어려워도 만 사람이 모여 염불을 하면 만 사람이 모두 서방극락에 왕생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서방극락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정수리에 수기를 받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니 생명 자체는 무한이되 그 생명의 껍데기는 유한입니다. 몸이라는 옷도 유한이고 물체라는 형상도 유한입니다. 무한을 싸고 있는 유한을 깨고 그 무한생명의 참 모습을 아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기 위해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제불보살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입으로만 불러서는 안됩니다. 온 마음을 모아 지극하게 불러야 합니다. 지극한 부름에는 응당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나라 잃은 서러움을 중국 대륙의 연변과 장춘 하얼빈등지에서 실컷 맛 보았습니다. 더러 탁발을 나가면 바루에 음식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고픔보다 서러운 것이 나라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벌이 총총한 이국의 들판에서 나는 염불로 감을 세운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며 객지를 떠돌며 해방된 조국에서 부처님 법의 바퀴를 굴리는 비원을 키웠던 것입니다. 6.25전쟁때도 나는 산더미 같은 시체 속에서 염불로 살아 났습니다.

염불 간경 참선 주력의 여러 방편이 다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것이 좋고 나쁘다고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일심으로 정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를 따지고 정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방편이란 그런 것입니다. 염불도 수행이고 참선도 수행입니다. 간경도 수행이고 주력도 수행일뿐 그 자체가 성불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뛰어 넘은 자리에 열반의 기쁜 종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맑고 고운 소리를 듣는 것이 모든 중생의 소원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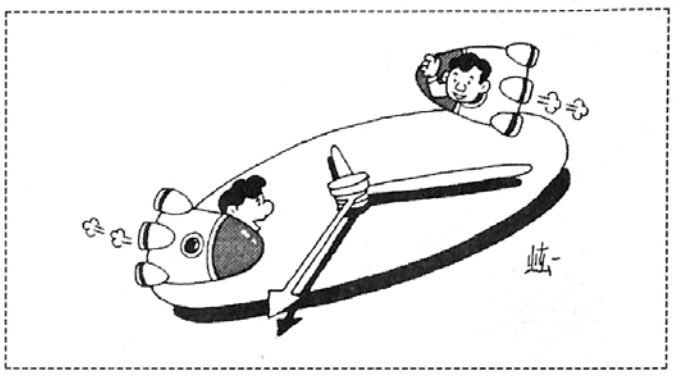
우리들이 부처님께 귀의 했다고 말하는데 귀의한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제불보살님의 외호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제불보살의 위신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이미 보살이요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을 염하고 부처님을 부르는데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불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지혜를 가꾸어야 합니다. 한량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신실된 삶을 누리며 지혜를 가꾸어야 합니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고 주력을 하여 튼튼한 지혜의 성을 쌓아 열반의 기쁨을 맛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은 그 기쁨을 위해 늘 노력 정진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소신공양으로 불보살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서원이 있어 이 나이든 납자도 오늘의 삶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소신공양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정해지면 편안하기 그지 없음을 아시고 방해나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가 멀리 있지 않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지 않으니 지금 인간 중생이 사는 곳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곳이 극락이고 마음을 잘 닦으면 이 모습이 아미타불이니 부디 게으름 피지 말고 수행 정진하여 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방편에 속지 말고 목적에 욕심내지 말며 마음을 비우고 비워 무량청정 불국토를 이루십시오.

나는 내 살아 온 과정을 되짚어 보건대 여러분께 아미타 부처님을 일심으로 염하는 염불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국토에 태어나길 발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원이 성취되게 하려면 무량의 공덕을 지어야 하고 무량의 수행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무량청정의 아미타 국토가 결처집니다.

“나는 이 허망한 몸뚱아리 소신공양 하여 사회안녕과 조국통일을 염원할 것 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5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22

색수상행식

심경의 관점 “我는 객관적 실체아니다” 상대성이론 “我떠나 현상 논할 수 없다”

‘…시고공중 무색무수상행식…’이라고 설함으로써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눈앞에는 삼라만상이 보는 바와 같이 전개되어 있는데 경전은 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루 같은 것이요 이 신기루를 보고 느끼는 정신작용도 모두 신기루같은 것이라고 한다.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에 대한 주체는 아(我)다. 그런데 경전은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 다 신기루같은 헛것이라고 한다. 경전은 ‘아’를 객관적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무색이고 ‘아’가 헛것이니 우리가 일상의 경험적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나’가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된다.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경전이 말하는 것, ‘색도 없는 것’, ‘아도 없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허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지로 보는 물질계와 분별지로 판단한 ‘아’가 없다는 것임은 물론이다. 주와객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아(我)’에 집착하여 아를 내세우다 보니 아에 대하여 객이 나타나 삼라만상을 전개한 것이 우리가 보는 물질계인데 이 물질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는 것이 물리학이다. 따져 본 결과 현대물리학의 토대가 되는 양자역학에서는 객관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도록 창조해서 보는 것이라고 양자역학은 설명하는 것이다. 물리학은 분별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空)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색(色)이라고 할만한 실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심경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시공간의 성질에 관해서는 특별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 시공간의 성질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대성이론이다.

동시성, 시간의 길이, 공간의 길이 이 모든 것이 그것들을 측정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색이 무엇인지 무색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관찰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켓을 타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과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다르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였는데 언뜻 생각하면 여기엔 모순이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소위 쌍둥이의 역설이라는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는 A라는 로켓을 타고 다른 하나는 B라는 로켓타고 일정한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는 B가 움직이고 있으므로 B에 있는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할 것이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지해 있고 A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A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할 것이다. 상대성이론은 둘다 옳다고 하였으므로 둘이 만났을 때 서로의 시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관측자의 운동상태를 알아야 한다. 서로 만나서 비교하려면 누군가가 가속운동을 하여 상대방의 로켓에 대해 정지하여야 한다. 이때 서로의 시간을 비교하면 가속운동을 한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것으로 판명된다. 가속운동을 하지 않고 서로를 관측하면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옳다. 물론 이 경우엔 쌍둥이가 서로 만나 누가 더 늙어 있고 누가 더 젊어져 있는지 비교할 수는 없다.

상대성이론이 말하는 것은 ‘아’를 떠나서 현상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마저 ‘아’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색은 아를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색을 떠나 수상행식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내용이다. 색이 따로 없다면 아는 따로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분별지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학이 답할 수 있는 성질의 물음은 아니나 경전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것을 알려면 반야지를 얻으라고 한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천혜의 전원주택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현재 화방) 기름보일러
◉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채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사 찰 부 지



◉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금액 6,500만원
◉ 지목: 준농림(H) 평수 : 103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잠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루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청산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급” 땅

장소: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웅곡마을
대지: 120평, 전답: 60평 싯가: 1500만원

연락처 : ☎ 0555) 72-9395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탑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탑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탑집외 등
구로동 원응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탑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절터 최적지

장소 : 청평 덕현리 정남향 국도 800M 경관수려
평수 : 2785평(일부대지) 평당가격 10만원

연락처 : 0346)594-4974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 2046
현 대 불 교 신 문 사 앞
韓 國 民 俗 哲 學 硏 究 所

탈종공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명 : 보광사
소재지 : 울진군 온정면 금천2리 958번지
주 지 : 김월선(보덕)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 ·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 공고함.

1996년 9월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탑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탑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탑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탑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동불. 탱화. 순금불사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묻노니 답하노니

바다 밑에서는 지진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 위의 섬에서는 아직 그 지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우녀와 소석행자가 잠결에 어떤 미세한 흔들림을 느꼈으나 다시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뿐이었다.

요즘 우녀는 잠 속에서도 누구와 말을 주고 받는다. 그것은 대해가 문둥병 환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이래 무육도 사람들의 대화가 부쩍 활발해진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떤 꿈 속에서는 낮에 하던 말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언젠가, 무육도를 떠난 사람들이 이곳 도량의 공부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로움을 감당하는 중생노릇인가 하고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걱정이 꿈속에서 이어지기도 하였다.

우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인담만이 아니었다. 인담이라 하더라도 꿈속에서는 사람이기보다 몸의 투명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허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허상은 듣기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녀는 그런 허상을 상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녀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말하자면 대답없는 대답에 우녀의 말이 이어가고 있었다.

"… 그렇겠지요. 만화님이 천상계에 태어난 뒤 다시 고통받는 중생이 된 것이나 남각님의 자옥, 루전의 바다 짐승 등도 그 중생노릇을 한번 뒤집어본다면… 거기에 보살의 길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요."

"……."

"어디 가서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실상(實相)이 아니라 무아(無我)인 것이라면 윤회나 인과 자체가 이미 공(空)을 깨친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菩提)인줄 알고 있거니와…."

"……."

"나는 진작에 저 청나라 중원지방에서도 더 머나먼 돈황의 어느 암굴 사원에서 살고 있는 합두스님의 수행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거니와 그 스님과 나는 땋마디에서 서로 같은 뜻을 나눌 수 있었지요. 그 스님이 말하기를 막고굴의 수행이 전생의 수행이나 괴로움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막고굴의 수많은 암굴사원들을 다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합두스님의 모습은 한 니승(尼僧)의 그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역사(力士)와도 같은 험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사나운 눈빛이 그만 꿈속의 내 몸을 마구 찔러대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 합두스님이 다른 날의 꿈속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난 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서 중국 남방에서 거기까지 전해진 발효된 차를 마시면서 자금 나는 차의 향기를 듣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지요. 향기를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 중생의 소리를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는 일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

"그 차는 40여년이나 차잎을 따서 대일에 싸둔 채 거의 내팽개다시피 잊고 있다가 실컷 발효된 나머지 그 흙내음에 가까운 차맛을 내는 것이라 하며… 과연 그런 차에서는 어떤 태고(太古)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

"그 스님이 어느날 꿈속에서는 나더러 어서 오라, 어서 와 함께 살자고 손짓을 해대기도 하였는데… 그만 나는 이 무육도의 바위 끝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곳의 선돌이 된 셈이지요."

이런 우녀의 일들이 섬에 찾아온 잇단 지진 때문에 뚝 그쳤다. 지진은 마치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항상 너희들 발 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섬을 몇차례 흔들어 놓고 갔다.

방안의 선반에 둔 경권(經卷) 한 질이 쏟아져 방바닥에 흩어진 것은 이 도량에 문자에 얽매인 사람이 있음을 경계한 것인가. 그 경전들이 방바닥에 떨어질 때 그 책 한두개에 인담의 등짝이 맞은 것은 이 도량이 구업(口業)놀이나 하는 사람이 있음을 경계한 것인가.

그밖에도 장독이 다른 옹기와 부딪쳐 깨어졌다. 그것은 가뜩하니 먹는 입에 소홀한 도량의 된장이나 간장을 없애버린 일은 차라리 바닷물을 떠다가 그것으로 찐맛을 맛보라는 뜻이란 것인가.

"이 물은 깨닫는 술입니다
지난날 퍼마신 술이 알고보니
미혹의 물이었습니다"

"대해처사가 이제 유마거사일세"

지진이 지나간 뒤여서 물으로 건너가 장을 구해올 엄두도 나지 않았으므로 바닷물로 간을 맞춰 푸성귀를 끓인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소석행자는 아예 배추 몇다발을 새끼줄로 단단히 엮어서 그것을 파도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낼으로써 간이 든 찬거리가 되게 하였다.

우녀는 그런 소석행자 더러 "차라리 짠맛도 군더더기이니… 그냥 먹는 것이 낫겠어. 소 보아. 맨풀을 그냥 먹지 않던가" 하고 푸짐한 농담을 던졌다.

대해가 지진이 지나간 뒤 이번에는 아주 된 질환에 걸려 공공 앓기까지 하였다. 그런 중에도 "문둥병은 아니니 나를 제발 물에 던지거나 하지 마시오"라는 말은 할 수 있었다.

인담이 그런 대해를 사나흘동안 정성껏 간병(看病)하였다. 손수 죽을 쑤어 날랐으며 환자의 몸을 쉬지않고 주물러서 맥박을 유연하게 길들였다.

보아라 그물 끊고 나온 고기
도리어 물에 머무는데
길 돌아온 석마가
비단 굴레 벗어났음인가
(途網金鱗猶戀水
回途石馬出羈韁)

대해는 그 모진 질환이 낫게 되자 그 이전의 대해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눈빛이 살아났고 얼굴에는 지난 날의 잠상노릇이나 하던 자국이 다 없어져 맑아졌다.

인담은 그의 환급했던 질환이 병이 아니라 큰 공부였다고 생각하였다. 마치 무당이 되기 전의 모진 무병(巫病)처럼.

"대해처사가 이제 유마거사일세."



93

"유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대해면 됩니다. 유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굳이 그런 유마가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는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무게가 실려있었다. 낚시의 찌가 그저 물 위에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물속에는 굉굉하게 매달려있는 낚시바늘과 작은 납덩어리가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런 납덩어리가 대해의 말 속에는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랬다. 저 석가모니 부처님과도 어쩌면 대등한 유마거사가 누구인줄을 대해가 알 리 없었다. 대해야말로 바다에서 방금 건져올린 한 마리 고기나 다름없지 않는가. 그가 이 섬에 살기 시작하며 어느 만큼 수행하는 나날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유마가 누구인지 달마 혜가가 누구인지 알 처지가 아니었다.

그로서는 다만 이곳의 인담과 우녀 그리고 소석행자면 그것으로 알맞아 "흡족하도다 흡족하도다"라고 흡흡송(洽洽頌)을 읊조릴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대해이기에 저 위업을 갖춘 스승 석가보다 작은 움막에 머물고 있는 세속의 거사 유마와 한봉속이 될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은 틀림없다.

마치 오래동안 땟국이 묻은 몸을 더운 물에 담가서 씻은 뒤 개운해진 몸인양 대해는 그 이전의 대해가 아니었다. 그런 대해를 인담이나 우녀가 어찌 몰라보겠는가.

우녀가 인담에게 속삭였다.

"무육도에 흰 소 한마리가 나타났어요."

"검은 소가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흰소가 바다로 돌아가겠소그려."

"돌아갈까요?"

"그럴 것 같소… 그러나 나도 모를 일이라오."

"차나 한잔 마십시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저 아래쪽에서 나뭇단을 짊고 있는 대해를 불렀다.

그가 이쪽을 쳐다보다가 샘쪽으로 가서 시원한 샘물을 떠오는 것이었다.

"어? 우리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던가?" 라고 인담이 기이하게 여겼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자고 한 것이 바로 물이나 마시자는 뜻이었는데 대해가 물을 떠온 것이다.

대해가 인담에게 허물없는 사이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 물은 깨닫는 술입니다. 하하."

인담이 좀 싱겁게 대꾸하였다. "그렇던가."

"제가 지난날 실컷 퍼마신 술이야 이제 알고 보니… 그 취하는 바가 미혹이어서… 미혹의 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녀가 나섰다.

"세상의 술은 물이라기보다 불이랍니다. 예성강 어귀의 술장사를 물장사라 하지 않고 불장사라 하지요… 술을 마시면 가슴에 불이 나는 것이니 안 그렇겠어요?"

"허허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미혹의 물이 아니라 미혹의 불이겠습니다."

"물이건 불이건…" 이라고 우녀가 말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말 속에 어떤 뼈가 들어있었으나 그들은 더이상 말놀이를 하지 않고 물을 몇모금씩 마셨다.

사실인즉 점심공양도 적은 양이어서 해가 기울을 때는 벌써 빈 배가 되기 알쑤였다. 그럴때 물을 마시면 요기가 되는 것이었다.

인담에게는 물 마시는 법이 있다. 한 모금을 아주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물을 빈어심기는 셈이어서 빈 속에 물의 충격을 주지않게 된다.

빈 속은 마치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처럼 조금씩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며 아주 관안해진다.

이같은 물마시는 법은 대해나 소석 그리고 투어린 행자에게는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물이야말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물을 마치 약이라도 마시는 것처럼 조심스레 마시는 것이 어찌 거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무육도의 식생활에서는 물이라도 이렇게 씹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약을 먹는 것처럼 마셔야 그것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몸에 이로운 것이라면 마땅히 마음에 이로울 것이 아니겠는가.

무육도에서는 이런 찬물 한 모금이 차 한잔이었다.

그림 · 조향숙

장엄의 순간을 포착한다



부처님 진신 사리탑

프로필
- 지지사 30년 증창불사 타큐멘터리 앨범
- 불교 템플비전 육법공양회 의식 촬영 앨범

아이템
- 전통문화 및 문화재 사진
- 템플스 - 모델 - 나레이티 사망성 등촬사 공체 프로필사진
- 사찰 행사 및 증창 불사 기록사진
- 사찰 포스터 및 달력 사진
- 석산 작품 사진에 글씨 주문제작

직 원 모 집

- 불자로서 신심이 있고 石山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분
- 사진에 상당한 실력이 있거나 사진학과 졸업한 분
- 디자인, 비디오, 컴퓨터 등 사진에 관련 전공자로서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분으로 전문인으로 함께 성장할 분

▣ 여의도 불교 문화 대제전 촬영 공급 공식 지정업체
불교문화 대제전 전시 및 공연 사진자료를 주문 공급합니다.

좋은 인연 石山 사진연구소
전화 : 02)511-2001, 011-219-777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호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봉축 '96 新 금강 영험 부적 호신불시계

■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봉축 佛紀2540년
부처님의 손에
시계바늘이 놓여 있어
시공을 초월하여
전지 만능의 조화를 부리는
호신불 시계입니다.

놀라운 신통력! 부적교환 첨단신제품

1. 소원 성취 부적
바꿀엔 소원성취 부적을

2. 칠성 부적
후면엔 칠성 부적을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를 추기제작하여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사업번창
- 무병장수
- 운전지무사고
- 합격소원성취
- 심적소멸
- 심산안정
- 일확자난구제
- 영혼의 선비체험

귀하의 품격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 부처비를고화문
- 오스트리아산다이아
- 타산간 A/S
- 30일 방수방충
- 고강도 크리스탈
- 18K Gold Crown
- 특수 IPG 금칠도금.

• 18K 금용두

138,000원 남·여한쌍

남·여 1세트
특별현금가:₩138,000
할부시 계약금:₩18,000
매월 30,000원×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우대)

▣구입문의: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代)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불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비나누는 한가위"

교계 복지관 추석 행사 다채

옛말에 '오월 농군, 어정 칠월, 동동 팔월, 추석 신선'이라고 했다. 즉 추석은 더할 나위없이 좋은 시절이 '더도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뜻이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교계 복지관을 비롯 사찰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자비의 정나누기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특히 복지관들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체육대회, 송편빚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바르게 입기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마련된다.



◇추석을 앞두고 무의탁·독거노인들을 위해 송편을 빚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지난해 모습).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지역내 독거·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이웃돕기 바자회 및 노인위안잔치를 마련한다. 19일 작은바자회 및 먹거리 한마당을 개최, 수익금으로 송편을 빚어 20일 무의탁노인 2백여명을 초청 한가위맞이 노인위안잔치를 연다. 이날 노인위안잔치에서는 어린이 재롱잔치, 한국무용이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기자랑도 펼쳐질 계획이다. 복지관측은 20일 노인위안잔치 행사에 참가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02)985-0161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추석을 맞아 영구임대단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쁨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쌀주머니(다보)를 제작해 복지관을 비롯 관음사 등에서 쌀을 모으고 있으며 이 운동은 추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 매월초 20세대에 쌀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4면〉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 한마음 축제'를 연다. 명륜동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한마음 축제는 1부 체육대회 2부 장기자랑순으로 진행된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은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친다.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모아진 쌀을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송편빚기, 한복바르게 입기, 절하기 등의 예절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복지관의 한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명절이되도 찾아오는 사람도 갈곳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송편을 빚고 전통놀이로 뜻깊은 하루를 보낸다.

자비의 집(원장 동광스님)과 **정토포교원**(원장 법륜)은 오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 추석맞이 한마당잔치를 펼친다.

추석 하루전날인 26일, 외국인들이 직접 송편을 빚어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연만들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전통놀이를 배우며 추석을 맞는다. 또 두 단체는 27일 용인민속촌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정토포교원 일대에서 연날리기를 하며 달맞이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계사 청년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선망부모 및 유주무주고혼 천도재를 비롯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훈훈한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노인·외국인 노동자돕기·쌀보내기등 앞장

한복입기·절하기등 예절프로그램도 준비

추석맞이 바른 불교제례의식

"차례상에 차 올리며 부처님께 조상영혼 인도"

추석을 맞아 가정에서도 불교의식으로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불교제례의식은 차례상에 술과 고기류대신 차와 과일 떡 나물등으로 검소하게 마련해 조상들의 영혼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여 모든 장애가 소멸될 것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지난 7월 부산불교신도회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른 불교제례의식'의 식순을 소개한다.

△입정-조상을 추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다. △십념(十念)-부처님 명호를 열번 염한다. △봉향찬(奉香讚)-향을 사르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정례(頂禮)-조상에게 절을한다. △독경-경전(반야심경)을 왼다. △헌다(獻茶)-차를 올린다. △권공(勸供)-조상에게 진지를 올린다. △축원 △봉송(封送)-신위에 하직인사를 올린다.

불교 수미정사 백화도량

불전윤독회 범어교육·경전강독

'천수경 백만대중 읽기운동' 전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수미정사 백화도량(법사 김호성)에는 불법공부에 전념하는 불제자들의 면학열이 어느때보다 진지하다.

지난 8일 지장보살 봉안법회를 끝으로 삼존불이 모두 봉안된 백화도량은 지난 4년여간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신도들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각종 신행활동을 펼치는 등 불교학의 인재와 참 불자를 배출하는 요람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생을 비롯 10여명의 남여 학생들이 김호성법사(동국대강사·불교학박사)를 중심으로 마주앉아 〈해심밀경〉을 공부하는 정경은 이곳이 바로 경전탐구 으뜸도량 가운데 하나임을 느끼게한다.

지난 6월 25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 모임은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김호성법사와 김성철씨(유식전공)의 지도로 불전을 공부하는 윤독회이며 백화도량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모임이다. 윤독회에서는 〈한역해심밀경〉과 〈신수대장경〉, 〈원측스님의 해심밀경소〉를 교재로 공부하며 자료집도 펴낼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 백화도량에서 〈해심밀경〉을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백화도량에서는 정법탐구와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현재 백화도량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법회, 직장인을 위한 담선법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또 정기법회를 비롯 범어·티벳어원전강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범어·티벳어원전강독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해독할 수 없고, 더구나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불교 이해를 위해서는 원전강독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또 백화도량에서는 92년부터 20년간 '천수경이야기 백만인 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에 대해 김호성법사는 "천수경이야기를 백만대중이 읽어 천수신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이 땅을 자비넘치는 정토로 가꾸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백화도량을 천수경 신행운동의 근본도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 수행승의 장 *
다섯 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승은
거센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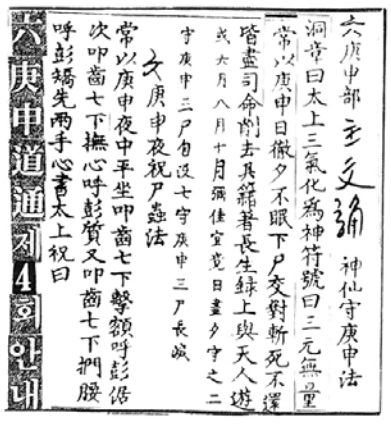


六庚申道通 제4회 법회 안내

금년 六庚申道通 제4회 기도법회가 양력 9월 19일(음 8월 7일 해시)에 입제하여 9월 20일 (음 초 8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여 큰 뜻 이루시기 바라옵니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 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적 제작 비법 공개



아무나 제작하거나 사용하면 무서운 재앙을 본인이 받거나 당하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부적을 쓰거나 작법을 하시는 분은 六庚申 기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하면 듣지도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육경신 第4회 기도 법회시 공개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부적의 비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明堂은 과연 明堂인가?
기문둔갑으로 보는 양택과 음택의 당사주법

사람도 사주팔자가 있듯이 땅이나 건물에도 땅의 사주팔자가 있고 대문과 방의 위치에 따라 富와 貴가 결정되듯이 모든 땅이나 건물, 집에도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吉凶 方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明堂일지라도 본인과 좌향이 맞지 않으면 출세간에 지장이나 가정 불화등이 다가올수 있으므로 집운을 관찰, 카운셀링을 하시면 출세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입제일 : 1996년 9월 19일(음 8월 초 7일) 밤 10시
해제일 : 1996년 9월 20일(음 8월 초 8일) 밤 해시
회 비 :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 화 : 02) 821-6622 · 야간 923-3110
육경신도통회 약사선원장 태일거일거사 합장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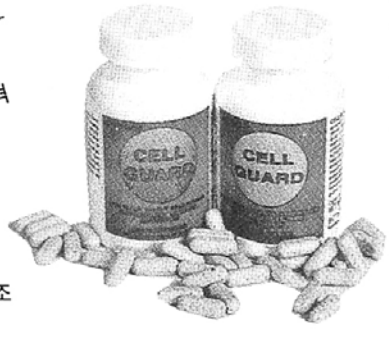
"미국수입완제품"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寺報의 세계로 초대"

회보·소식지·문서포교지 1백여종 한자리에

'책방 여시아문' 2주년 기획

사보문화 위상 재점검 기회

①10월23일~29일 寺·會報전시회
②좋은 책 선정위원회 발족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는 사보·회보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이져 전시된다.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과 각 신행단체의 회보(會報)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책방 여시아문은 개업 2주년 기념으로 오는 10월 23일~29일 1주일간 책방 전시장에서 각 사·회보의 최초 및 최신 발행판을 전시하고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를 곁들인 '사보 전시회'를 연다. 여시아문은 전시기간 동안 참가고객의 인기투표를 통해 △재미있는 사보 △인상깊은 사보 △받아보고 싶은 사보 등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사보와 회보는 해당 사찰의 법회 안내, 회원 동정, 알림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식지'로부터 불교교리와 설법, 불교상식, 신행담, 신행상담 등의 내용을 첨가한 '문서포교지', 일반인을 독자대상에 포함시킨 잡지형에 이르기까지 문서포교의 첨병으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사찰·지역별로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사찰언론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하면서 잠재적인 불교 홍보지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보 전시회'는 사보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사보문화를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사보류는 현재 1백여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선학원의 〈선원〉, 월정사의 〈오대법보〉, 맑고향기롭게살아가기운동본부의 〈맑고 향기롭게〉, 불교신행연구원의 〈법공양〉 등의 월간 사보·회보가 창간됐고 올해는 성철스님문도회의 〈고경〉, 불교TV의 〈btn가족〉,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만해새얼〉 등 계간 회보와 대한불교청년회의 〈청년불교〉, 전불련의 〈대승정론〉 등 월간 회보가 꾸준히 창간되고 있다.

하지만 사보의 전반적인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완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인력 및 필자의 부족, 소극적인 투자와 열악한 대우, 높은 폐간율, 일부 사보의 지나치게 호화로운 장정 등이 시정돼야 할 숙제라는 것.

이와관련 월간 〈봉은〉(봉은사 발행)의 노희순 편집장은 "예전처럼 스님이 바뀔 때마다 사보 발행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제는 스님·신도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에 힘쓰는 한편, 사찰 규모에 따라 소식지 위주의 '주보(週報)' 형태와 불교교양 위주의 잡지형태로 이원화시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객참여 양서 선정

책방 여시아문은 또 하나의 개업 2주년 행사로 고객들의 알찬 독서생활을 위한 '좋은 책 선정위원회'를 발족한다. 각계 전문가 6명과 고객 6명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는 다달이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독자는 불서를 읽고 독후감(2백자 원고지 5매 분량)을 책방 여시아문으로 보내면 된다. (02)737-0695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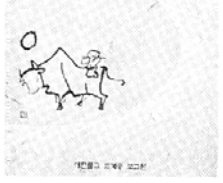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3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4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5	기도	일 타	효 림
6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7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8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경 서 원
9	위대한 자기의 발견	서 암	정 토
10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구입문의:(02)737-0695

출판학제



"통일 교재로 누구나 불교공부"

조계종 '불교입문' 출간…의식·교리등 정리

조계종 최초의 통일적인 불교입문서가 나와 전국 불자들이 통일교재로 공부하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일반 시민·불자들을 위해 신도입문서인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했다.

7인의 편찬위원이 1년간 준비한 이 책은 불교 의식과 문화의 통일을 목적으로 불교의 기초교리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불교입문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편집했다. 특히 어렵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불교사상을 설명, 교학보다는 믿음과 신행을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또 환경통일 봉사 성보의 이해와 보존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불교적 대안을 제시한 점도 기존 입문서와 다른 점이다. 포교원은 사찰·불교대학의 신도 교육교재나 일반시민용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값 3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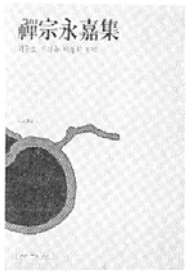
(02)737-0695

세계최대 '동양철학사전' 10월 발간

2만4천여개의 어휘를 수록하는 세계 최대의 동양철학사전이 10월중 부산대 출판부에서 발간된다. 부산대 철학과 김승동 김위성 박선목 정해왕 교수팀은 지난 10년동안 동양철학 관련어휘 2만4천여개를 정리, 인도·불교사상 도교사상 역(易)사상 한국철학 중국철학 등 5권으로 나눠 사전을 출간할 예정이다. 국내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 사전은 종교학 철학 민속학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사전에 실리는 어휘는 외국 철학사전에 나오는 동양부문 어휘량의 8배분량이다.

선종영가집 | 최동호 外 2인 편역

화제의 책



修禪요결등 현대적 의미 역점 주석

당나라 때 스님 영가 현각(永嘉玄覺; 647~713)이 찬술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의 완벽한 주해서가 나왔다. 고려대 최동호·전경욱·이창희 교수 3인은 4년여의 작업끝에 1464년 세조가 친히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혜각존자 신미(信眉) 등이 번역했던 〈선종영가집언해〉의 현대판 주석서를 펴냈다. 신국판 790쪽의 방대한 분량을 담은 이번 역서는 기존 역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외에도 별도의 주를 달아 학술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수도(修道), 입지로부터 수선(修禪)의 요결 등을 설명하고 있는 〈선종영가집〉은 천태종과 선종 양파의 교리를 종합한 최초의 수정이다.

새로나온 책...



▲마음·벗 그리고 땡(서암스님 저)="불타고 있는 집(세계)일수록 더욱 자기 수행이 절실합니다. 개인의 수행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생활禪을 설하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의 세번째 법어집. 서암스님은 불법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며 "수행운동을 통해 불교중흥의 꽃을 피우자"고 설한다.

〈정토 6천8백원〉

▲21세기 대사상(장화수 저)=탄허스님(1913~1983)과 장화수교수(중앙대 사회과학대학장)가 다가올 21세기 세계변화에 대해 다년간 나눴던 대담을 정리했다. 불교의 연기론과 〈주역〉의 자연변증법,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21세기를 전망한 미래서.

〈혜화 8천원〉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김성동 엮음)="분함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으며 허물을 고쳐 착한 데로 옮기라, 이미 옮겼거든 변하지 말라. 즉히 스스로 몸을 닦을 것이니 죽도록 변치 말고 힘쓰라." 불교 장편소설 〈만다라〉〈연꽃과 진흙〉의 작가 김성동이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1741~1793)의 〈청장관전서〉 중 〈사소절(士小節)〉편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시 엮었다. 어린이·여성·선비의 예절을 다뤘다. 〈솔 6천원〉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송천호 저)=삶을 찾는 일은 우리 눈의 사각지대인 나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서예가이자 처세전문 작가인 저자는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아 5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한용운 산문선집'

"조선불교유신론등 산문 읽으면 만해스님의 사상·정신 보인다"



손춘익
(소설가·포항문학 편집인)

불교 서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불법의 울창한 삼림(森林)에 비하면 한갓 가랑잎에 불과하다. 불법의 대해를 건너는 뗏목(方便)에 불과하다.

현대실학사에서 발간한 정해렴 편역 〈한용운 산문선집〉은 생전에 만해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조선불교유신론〉 외 51편의 산문을 모은 책으로 기억에 남는 불서이다. 이 책은 일제 강점기 만해의 눈을 통해 참된 불교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불서이자, 아름다운 시어를 산문화시킨 훌륭한 문학서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만해 한용운은 선사로, 시인으로, 또 독립운동가로 고난의 시대를 극복해 온 전설적 인물이다. 시인으로서 그는 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명시집 〈님의 침묵〉을 남겼으며, 선사로서는 이 선집에 수록된 산문들을 통해 자신의 불교적 사상과 신념·교양을 밝히고 있다. 편역자는 일러두기에서 만해의 정신과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산문만을 모은 것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글의 성격에 따라 6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에서는 집필시기나 발표연대 순으로 배열하여 만해사상의 발전·발양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불교유신의 제창, 불교정신과 그 개혁운동, 민족정기와 독립정신, 사회와 인생, 인생 여정, 사회교화의 방편, 만해 한용운선생 연보(부록) 등으로 구며져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글은 〈조선불교유신론〉이다. 만해가 그의 첫 저술인 유신론을 완성한 때는 1910년 12월 8일이나 이것이 불교서관에서 척으로 간행된 것은 1913년으로 그의 나이 35세 때였다.

유신론은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서(序)가 따로 있고 제 13장에는 '중추원 헌의서' 및 '통감부 건백서'가 덧붙어 있다.

만해는 당시 황폐·쇠미해진 우리나라 불교를 민족·민중불교로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불교의 효능과 특징을 말하면서 '유신을 하려면 먼저 파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승려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법, 참선제도의 개혁 필요성, 참다운 염불의 의의, 포교의 방법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밖에 사원의 의식을 간소화할 것과 스님들의 생산활동 참여와 그 생산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중생제도의 정신을 실천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불교유신론〉에 나타난 만해의 사상과 신념이 반드시 오늘날에도 맞는 시공을 초월하는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암흑기인 1910년대에 이미 민중불교사상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각자로서의 삶은 편하게 살고 쉽게 깨침을 얻으려는 오늘날 불자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준다.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무시 도를 얻고자
4 신세계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중생을 귀성(歸依)하고 있다
2 임서 간 구도자들
1) 앙굴리말라
2) 흉녀의 성불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징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223㎜)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0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62

회전식(법륜)

(銀)염주지압반지 탄생 !
- 건강과 기도수행하며 소원을 이루는 반지 -

염불하는 공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불하는 인연되어지이다.


염주 지압반지 특허출원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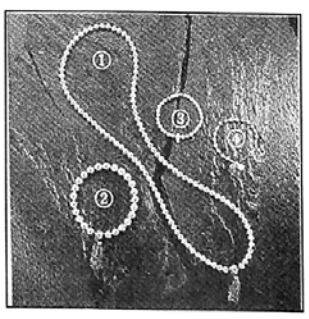
銀은 예로부터 世界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속에서 오늘날까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銀은 우리 인체의 해로운 성분과 만나면 금방 색깔이 반응한다는 것과 인체의 해로운 650여종에 살균효과 또 임금님의 수라상에 은수저가 올라갔던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나마스떼에서는 불자님들의 건강와 기도하실 수 있도록 銀(92.5%)으로 만든 회전식 법륜 염주지압반지, 은단주, 합장주, 호신불 팔찌,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륜 회전식 염주 지압반지의 좋은점

(銀은 92.5%로 된 회전식 법륜염주 지압반지는 지압효과를 볼수있는 침구가 안쪽에 있으며 바깥돌이가는 면에는 옴마니반메훔, 지장, 관세음 보살이 양각되어 전철, 버스, 목욕탕등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주, 염주처럼 하나씩 돌리면서 수행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 용이나 수계식때 불자보시용으로도 좋은 반지고 건강과 기도를 함께 수행하며 자신의 근기에 따라 소원을 이루는 반지 입니다. 염불하며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불자님에게 꼭 필요한 수행기구 입니다. 14k, 18k는 별도 주문 제작하여 드립니다. (소비자권장가 ₩10,000)

자매품

① 은염주 은(銀)92.5% 규격: 8mm ₩96,000
② 은성불 단주 은(銀)92.5% 규격: 10mm ₩50,000
③ 합장주 은(銀)92.5% 규격: 5.6mm ₩17,000
④ 호신불팔찌 은(銀)92.5% 규격: 5.6mm ₩15,800



▪판매원 : 출발나마스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번지 삼익패션타운4층 153호 TEL:779-1932 · 779-1938 FAX:779-1932
사무실 : 대표전화 318-3522
FAX:779-1440

▪지역대리점 : 서울 (종로)제일사274-0797 (종로) 진은사 273-4864 광주성민유통 062-222-5537 대구제일사 053-252-4370 부산세진051-644-7151 은혜공방 051-241-2135 부산불교전시관 051-647-7393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공예가 한경수 씨

"박에 불화 새기며 마음공부"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달밤, 낮으막한 초가지붕위에 둥그렇게 달린 박덩이와 수줍게 핀 하얀 박꽃은 한국인의 마음의 영원한 표상이다. 정갈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이 한국인을 그대로 닮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심속에서 저만큼 밀려난 박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불화를 그리고 박과 함께 삶을 꾸려가는 박공예가 한경수씨(51).

경남 양산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박에 작품활동을 하고 또 박을 이용한 무공해식품을 개발해 '양산박'이란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한씨가 오는 10월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우수품질상 시상식에서 식품부문 골든상을 수상하게 돼 화제다.

"대학 재학시절 친구네 과수원에 놀러갔다가 달밤에 핀 박꽃의 아름다움에 끌려 박공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에 입체적 기법과 회화의 우아함을 접목한 기법으로 그린 불화는 섬세하기 그지없다. 표피를 이용하는 종래의 박공예와 달리 겉을 떼어내고 하얗게 드러난 속살위에 관음보살상과 반야심경 등을 새긴다. 처음에는 산수화나 글자 등을 주소재로 하였으나 박을 교배하면서 다른 두종의 박이 어우러져 하나의 박이 나오고 같은 줄기의 박에서 하나가 잘 영글면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함을 보며 자연의 순리를 터득하게 되면서부터 박에 불화를 그려넣는 일에서 법열을 맛보고 있다.

그의 박공예는 구도의 여정이라 할 만큼 경건하다. 작업 전 꼭 참선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박에 그린 불화전시회를 가지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호평을 받게된 한경수씨는 박을 이용한 식품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



◇ '양산박'으로 불릴 정도로 '박'에 심취한 한경수씨의 박공예는 구도의 여정이라 할만큼 경건하다.

박식품 개발…10월 파리서 골든상 수상
내년 일본서 대규모 박공예展 열 예정

"박은 옛날 우리가 즐겨먹던 고유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는 반면 박고지를 초밥에 넣어 먹는등 일본에서 더욱 즐기는 식품이 된 것을 보고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음식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박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박식품을 연구해 지금은 박면, 박수제비 등을 개발해내 외국으로 수출 호평받고 있다. 정성껏 만든 식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93년 스페인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식품상에서도 상을 받았을 정도로 한씨의 박공예와 박식품에 대한 호응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 사업이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겠지만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가고, 완전 무공해식품 보급이라는 국민건강차원에서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한다"는 말로 작품활동에만 전념치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그는 박식품사업을 마음놓고 맡길 불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한경수씨는 내년 일본에서의 대규모 박공예전시회 준비로 바쁜 가운데 또하나의 문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작업장 뒤편에 위치한 신라시대 대규모 절이 있었던 운흥사지를 보존하기 위한 '운흥사지보존위원회'를 발족하는 일. 내 달쯤 관심가진 지역 스님 문화계인사들과 함께 '운흥사지보존위'를 결성해 우리 문화유적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양산=천미희 기자

서예전문 대학원 설립

동방대학원대학교 여초 김응현씨 포천에

세계최초의 서예전문 대학원이 경기도 포천에 설립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법가 여초(如初) 김응현씨(동방연서회장)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는 서예전문 대학원의 이름은 '동방대학원대학교'.

포천군 소흘면 초갑8리 2천여평 대지에 세워지는 '동방대학원대학'은 △서법예술학과 △회화예술학과 △서화이론학과 등 3개 학과 각 50명씩의 정원으로 서법과 회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석사 박사과정의 2년제 대학원 코스.



◇김응현씨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서법예술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을 구상해와 동방연서회내에 전문서법연구과정 '동방서법탐험회'를 결성해 기초를 닦아놓은 김응현씨는 "중국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 문화의 근간이 된 동방문화를 부흥시키고 점점 침체돼 가는 서법예술의 위상을 확립시켜 우리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한다.

동방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우리나라와 더불어 서예의 종주국을 이루고 있는 중국 일본의 유학생들도 받아들여 상호 연구에 활성화를 이루고 중국 일본의 유수 서예가를 초빙, 강의도 하게 해 3국의 서법교류도 앞장서게 할 예정.

동방대학원대학은 이달말 학교법인 허가가 나는대로 대학건물설계도를 마련, 내년초 기공을 갖고 오는 98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63〉

청정은 진여의 법음

師愛無喧地 (사애무훤지)	스님은 조용한 곳 사랑해
香峯最上居 (향봉최상거)	향로봉 최상봉에서 살다
眠雲調鶴慣 (면운조학관)	구름에 졸아 학의 버릇 익혔고
友鹿訪人疎 (우록방인소)	사슴이 벗이라 찾는 이 없다
月袍秋霜凜 (월포추상름)	달은 가을 서리 품어 싸늘하고
風襟水鏡虛 (풍금수경허)	바람은 물거울 안아 비었다
何緣投梵席 (하연투범석)	스님 자리에 나아갈 인연은 언제
淸淨話眞如 (청정화진여)	청정히 진여를 말해본다지

위의 시는 설암선사가 보영(寶瑛)스님에게 준 시이다. 스님이 살고 있는 청정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은 스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모든 반연을 끊은 자리에서야 한 마리의 학과 스님이 다를 것도 없다. 한가로운 구름이 바로 스님이 조는 자리이고 그 고고한 모습은 학과 다를 것이 없다. 노송에 의지하여 구름에 싸여 있는 학과 선정에 들어 있는 스님의 모습은 상하의 공간적 차이일 뿐 그 청정 그 정적은 공통적 요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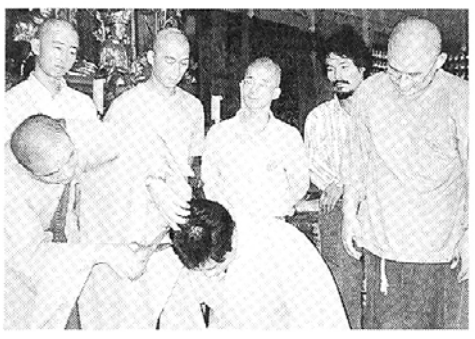
속인에게는 소유의 욕심이 있기에 사슴이나 노루가 피하는 것이지만, 망아의 무소유인 스님에게는 사슴은 벗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기에 속인의 내방은 절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서리를 안은 달이다. 서리를 안았다는 표현도 매우 재미있다. 달빛이 하도 맑아 서리가 내린 줄 알았다는 말은 있지만, 달 자체가 서리를 안았다 함은 그리 흔한 착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러기에 그 달은 더 싸늘하고 싸늘하다 못해 늠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바람이 공기의 유동이라는 과학적 표현을 인정한다면, 공기를 볼 수 없듯이 바람도 보지 못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보고 있다. 나무의 흔들림을 바람으로 이해한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깃발에 바람이 흔들리느냐 깃발이 흔들리느냐의 선문답도 있다. 이 시는 물낯에 이는 물무늬에서 바람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은 거울 같은 물을 옷깃으로 여민 것이니, 바람은 거울같은 물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시는 비었다는 한 마디로 역시 없음의 실상을 드러내었다.

이 비어있음 그 자체가 바로 법체의 실상이니, 보영스님이여 함께 법석을 같이하여 진여의 청정한 담론을 즐겨보자. 그 인연 언제 닿을지 모르기에 시 한 편으로 미리 자리를 함께해 보는 것이다. 구름에 조는 한 쌍의 학이듯이 고고한 두 스님이 보이는 듯하다. 이렇듯 청정한 모습 그 자체가 진여의 담론일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뜰앞에 잣나무' 배우 5명 삭발

극단 완자무늬는 정통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 개막공연을 앞둔 지난 7일 개운사 대웅전에서 지하스님(중앙승가대학장)을 계사로 스님으로 출연하는 조종원씨등 5명의 배우들의 수계및 삭발식〈사진〉을 가졌다. '뜰앞에 잣나무'는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10월 20일까지 평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 공연(토·일 오후 4시 7시, 월요일 쉼)된다.

열반 3주 성철스님 추모展

성철스님 열반 3주기를 맞아 스님을 기리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성철스님문도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회관에서 '우리시대의 부처 성철스님추모 김호석 수묵인물화전'을 개최한다.

인물화에 있어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김호석씨가 그린 성철스님인물화 40여점이 전시되며, 11일 '성철스님의 생애와 사상', 12일 '돈오무심과 간화선' 18일 '참회와 기도' 등의 특강도 마련된다.

화제의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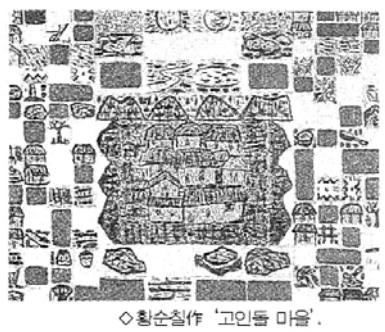
황순철씨 '고인돌 마을' 동국조각회원전
서울서 호평…지방나들이

○… 지난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불자 서양화가 황순철씨(40)가 9월 11~17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고인돌 마을'을 주제로 개인전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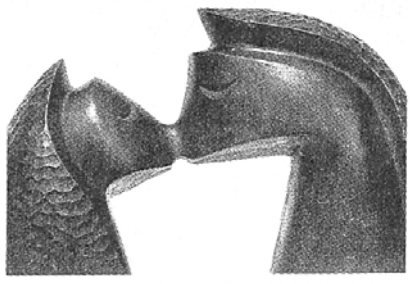
급격한 산업화와 역사의 변동속에서 잊혀져 가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우리미술의 정체성이란 과제를 고인돌마을 그림을 통해 조형화한 황씨는 오는 11월 5~11일 광주 인재미술관에서 또 한차례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 동국조각회(회장 이점원)의 제20회 회원전이 지난 11~17일 서울 도올아트타운 갤러리 개최에 이어 9월 30일~10월 5일 경주 한림갤러리에서 열린다.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자를 주축으로 결성된 동국조각회전에는 이점원 홍낙기 진철문 조덕환 이미령 박경범씨 등 24명이 참여해 자신들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황순철作 '고인돌 마을'.



◇동국조각회展에 나온 이점원作 '키스'.

'시와 시학' 가을호 미당 서정주 특집

"등단 60년 맞은 노시인 삶과 작품세계 조명"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 시인으로 꼽히는 미당 서정주시인(81)이 공식데뷔해 문단생활을 한지 60년을 맞았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벽'이 당선돼 등단한 미당은 첫시집 〈화사집〉(1941)부터 〈늙은 떠돌이의 시〉(1993)에 이르기까지 14권의 시집과 1천여편에 가까운 시를 발표했고 아직도 의욕적으로 시작을 전개하고 있다.

계간 〈시와 시학〉 가을호는 서정주시인의 등단 60주년을 맞아 특집을 마련, 시인이 성취해낸 작품세계와 그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했다. 이 특집에서 미당은 '나의 문학인생 7장'이란 장문의 글을 통해 지난 인생을 약술하고 그 사상적 편력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청년시절 한때 경도됐던 공산주의의 극복과 자유사상의 넓은 벌판으로 나아간 사연, 동양사상으로 회귀한 과정, 신라주의의 표방과 세계관력에서 얻은 느낌 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특히 몇몇 친일詩 제작과정과 그에 대한 소회를 토로하며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국민총동원연맹의 강제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들이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가 만난 서정주'란 제목으로 시인 김춘수 김종철 이경 문정희 송수권씨 등의 추억담이 실렸고 특집논문으로 김종길교수(고려대) 김용직 김윤식교수(서울대) 임보교수(충북대) 윤호병 윤재웅씨(문학평론가)등이 미당詩의 성격을 다양하게 조명했다.



윤호병씨는 '서정주 시의 시간과 공간'을 집중 탐구하며 "미당의 시에서 이승과 저승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그것은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서방정토사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파하고 미당시에서 국화와 더불어 '깨달음' 등으로 많이 상징되는 연꽃의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미당연구 논저가 무려 250여편이 있다고 전제한 윤재웅씨는 미당연구사를 개관하며, "서정주 시의 생애('화사집'에서 '동천'까지)를 지옥에서 열반으로 이르는 구도의 과정으로 보고서 이것이 유기체적인 진화를 이루어냄으로써 마침내 서정주시가 구도의 완성을 보게 됐다는 평문은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숙〉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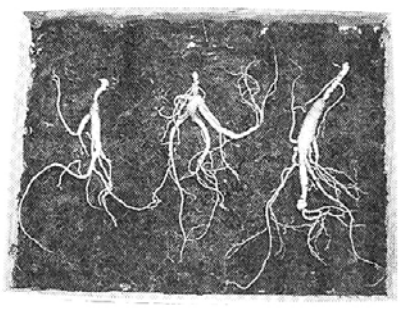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역	주소	전화	팩스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주	제주시 이동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141-3	0361)241-0633	
영주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9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럭키APT 810-902	344)912-2323	
강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수험생, 운동선수, 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불자님께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겠습니다.

■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산지확인가능)

장뇌산삼의 효능

· 산삼과 더불어서 신비한 원력을 주는 것으로 현대과학으로도 명확하게 성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의보감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신장질환, 뇌졸증, 당뇨, 간장질환, 저고혈압, 신경쇄약, 빈혈, 자궁질환, 강정효과, 심혈관기능부전, 소화불량, 종양등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줍니다.

※ 특전 : 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보약을 염가로 알선해 드립니다.

◐ 별도상담
· 자연산삼,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봉삼문의
· 상황버섯 문의
· VIP단체선물 환영

※ 그동안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관심은 있었으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접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

종교가진 주부 '행복지수 높다'

어은주씨 박사논문 '도시가족의 건강성…'

우리나라 주부중 종교를 갖고 있는 주부들이 그렇지 않은 주부들보다 가정에 대한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희대 가정대 강사 어은주씨(31)가 지난 3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서울지역 주부 28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요인 연구' 박사학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82명의 주부 가운데 무종교인이 75명 종교인이 207명으로 집계됐으며, 신행생활을 하는 주부일수록 결혼생활 만족도 내지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에 대한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부의 경우, 구체적인 종교분포는 전체 73.4%중 개신교가 34.8%, 불교가 22.0%, 천주교가 12.4%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경우 무종교가 35.1%, 개신교가 29.4%, 불교가 20.9%, 천주교가 8.2%로 남편에 비해 부인의 신행생활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교가 있는 주부들의 가정행복도(만족도)가 170점 만점에 132.9점으로 종교가 없는 주부들의 가정행복도 128.8점보다 높아 종교계의 눈길을 끈다.

신행활동 정서안정·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는 주부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가족의 건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스티넷(Stinnett), 올슨(Olson) 등 가족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의, 종교가 가족의 건강성을 구축하는데에 기본이 된다는 주장과 갤럽(Gallup)이 종교유형과는 상관없이 신행생활 그 자체가 가족관계를 강화시켜준다는 등의 주장도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말해준다.

어은주씨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종교가 건강한 가족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가족간에 종교적, 신앙적 주체를 공유한다는 것은 기계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가족에게 공통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종교를 가진 주부가 더 행복하다. 종교가 있는 주부들의 가정행복도가 무종교 주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도필선 기자



◇온가족이 함께 보는 추석특집 가족드라마 '뱅플랭의 까마귀'.

불교TV 불교방송

한가위 프로 '풍성'

8월 한가위를 맞는 방송가가 풍성하다.

불교TV는 추석을 맞아 '퀴즈특급! 이뭐꼬?-왕중왕전'을 오는 25일 오전 11시 10분에 방송한다. 통해사 가릉빈가팀과 동방불교대학 자비전법팀이 불꽃튀는 접전을 거쳐 우승한 팀에게는 동남아 4박5일 여행기회도 주어진다.

태국 불교의 오늘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황금빛 사원의 나라를 찾아'가 26일 오후 1시5분에 방영되며, 27일 오전 10시 20분에는 불자 탤런트 엄앵란, 김호진, 마라토너 황영조등이 출연하는 추석특집 '스타들의 산사체험'이 방송된다.

또한 추석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2부작 드라마 '뱅플랭의 까마귀'가 27일~28일 오후 1시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오는 26일~29일 나흘동안 귀향길 교통현황과 추석이야기 등을 음악과 함께 전할 계획이다. 〈은〉

백양사 교구본사 첫 납골당 건립

450기 10월말 공사…온습도 제어장치등 시설 갖춰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가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납골당을 건립한다.

백양사는 명부전을 해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45평의 납골당을 짓고 그 위에 명부전을 복원할 계획으로 오는 10월말(10월25일 방장 추대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계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백양사는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 등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4백50기 영골을 안치할 수 있는 45평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양사는 일본 장묘시설 기술을 도입, 냉 난방 및 온습도 제어장치, 냄새소독시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지선스님은 "매년 서울 여의도 크기만한 땅이 묘지로 변하고 있고, 납골당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포교의 일환으로 납골당 설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화장 등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찰단위의 납골당 건립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불교가 장례문화를 주도할 때 포교 및 사찰의 사회공헌도 인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연예

김흥국씨 월드컵 홈페이지 개설

불자가수 김흥국씨가 2002년 월드컵 축구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김씨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문업체인 웹 인터내셔널(주)의 협조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2002년 월드컵을 주제로 축구인들의 관심을 결집해 나갈예정이다.

이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webb.co.kr/worldcup/worldcup.html이다.

'김광석 가요제' 추진

지난 1월 6일 돌연한 자살로 32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던 라이브 가수 김광석을 추모하는 '김광석 가요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혜순씨가 실장으로 있는 김광석 괜플럽 동근소리는 최근 김광석의 유작 라이브 앨범 〈인생이야기〉와 〈노래이야기〉가 출반된 것에 때맞춰 라이브 음반발매 기념제를 김광석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수안사에서 치르고 서울 대학로에 김광석의 추모비를 건립하는 한편 사후 2주기에 '제1회 김광석 가요제(가제)'를 개최, 신인 포크송가수들의 등용문으로 삼는등 일련의 행사를 추진중이다.

목탁소리

요원한 문화선진국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지난 70, 80년대 그저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온나라가 매달렸던 우리가 문화진흥과 복지사업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생각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생활정도는 예전보다 월씬 나아졌지만 이와 반비례로 공중도덕심등 윤리는 형편없이 무너져 가고 금전만능과 물신주의가 그 어느것보다 대우받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근근과 근기, 여유, 양보등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배운 아름다운 태도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막 돼 가는 사회분위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거름장치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체부가 추진하려 했던 '문화복지구상' 대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돼 문화예술계의 크나른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년 문화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등의 체육관련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성 등 10여건의 중요한 문화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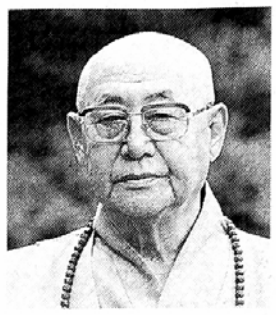
도대체 국민들로 하여금 뛰고 치고 달리는 운동경기만 보고 살라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다. 문화는 당장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준다. 문화의 꽃을 피우는 일은 열심히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워지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때문에 예산이 체육활동에 우선 배정되고 문화복지사업은 묵살되다니 이 정부가 문화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간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종단의 예산도 금방 가시화되는 부문에 먼저 배정이 쏠리는 것은 아닐까 괜한 기우가 든다.

보우스님 中구법행로 답사 다녀온 덕암스님

"석옥화상과 문답했던 천호암터 찾았지요"

보우스님 한국서 견성후 중국행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7백년전 태고 보우스님이 떠났던 중국 10만리 구법행로를 따라 답사를 다녀온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 순천 선암사방장)〈본지 91호 보도〉. 태고 보우스님의 출생지부터 열반지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지답사한 덕암스님은 오는 10월말 발간예정인 1천쪽 분량의 〈태고보우국사 법어집 및 논총〉을 필생의 역작으로 추진중이다.

-먼저 태고 보우스님 중국구법행로 10만리길의 의미와 다녀오신 소감부터 들려주시지요.

▲ 태고 보우스님 구법행로와 항주 천호암 답사 발원을 20년전부터 해왔습니다. 다녀보니 감회가 새롭고 태고 보우스님이 선지식을 찾아 걸으셨던 10만리 구도의 길이 눈에 아른거려 저절로 눈물이 나옵디다.

-답사 전부터 태고 보우스님과 청공 석옥화상이 문답했던 사찰로 전해지는 항주 천호암 사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돼 왔습니다.

▲ 중국 문화혁명당시 폐사된 천호암을 찾아냈습니다. 중국 절강성 문화부에서 발췌해준 자료에서 '석옥화상의 '석옥'은 호수옆의 연꽃바위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구절에 기초하여 항주에서 서북쪽으로 60리정도 떨어진 주변일대 산맥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무산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산중턱의 연못과 그 옆의 거북바위를 상보 하보 마을에서 찾아낸 것이지요. 주변일대에 주춧돌 기왓장 연꽃좌대 등 20여가지의 유물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번 답사는 태고 보우스님이 석옥화상에게 법을 배워 인가를 받고 임제법맥을 이은 것으로 전해진 법맥 재조사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만.

▲ 보우스님은 국내에서 견성하여 단지 자신이 이룬 도를 확인하고자 전국의 선지식을 찾다 10만리길을 걸어 중국의 석옥화상을 찾아갑니다. 보우스님이 석옥화상을 만나니 석옥화상은 "많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지요"라는 말로 대도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배워 법맥을 이은 것이 아니라 서로 견성한 법을 문답한 것이지요.

-태고 보우스님이 2년간 중국에서 주지를 지냈던 북경 영령사지와 대관사지는 어떠했는지요.

▲ 보우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영령사에 3번 원나라 왕과 신하가 법회에 참석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북경이 아니라 당시 수도였던 대도를 중심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답사단의 분석에 따라 제 2차 답사를 준비중입니다.

-스님께서 〈태고 보우국사 법어 및 논총〉을 발간하는 것은 태고 보우국사의 행장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 보우스님은 백장청규 치문경훈을 들여와 원융부를 설치했으며 통불교를 주창하고 선농일치에 입각한 사찰의 독자적 운영등 그 업적이 큽니다. 보우스님 행장을 재정립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김원우 기자



◇덕암스님 등 대륜불교문화연구원 답사단이 중국 하무산 천호암터에서 연못 등 유적을 확인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연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부산.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조계종 ■상담문의 :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 864-3740
※ 기타 지역상담 문의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배원)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탑다라니의 신비로운 영험력!

1)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 이 氣(기)는 신심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분지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氣(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악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일이 저절로 악함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것인지? ● 언제 이루어 질것인지?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하고자 하는일이 성사될것인지? ● 무슨일을 하면 될것인지 ? ●대학 입시에 합격할것인지? ●어느 대학에 들어갈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것인지 ? 등 어떠한 일이든 신탑다라니 안에 적어놓고 氣(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 질것은 氣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氣가 나오면 십중팔구 (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4)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 없이 많은 온갖 靈(영)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엷은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 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일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5) 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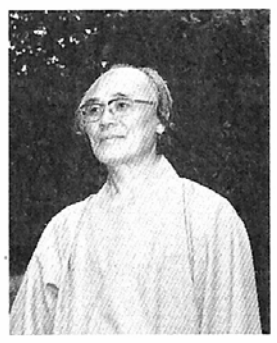
⊙ 스님들께 :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불탑다라니 조성 경위와 사용방법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 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이들에게 언제나 밝고 바르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시던 한길로 대법사께서
1996년 8월 31일 (음.7월 18일)에
입적하셨음을 알려드리며,
9월 2일 봉행된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큰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비후 수습된 사리 친견법회 및
49제 봉행을 알려드립니다.

49재 및 사리 친견법회

일시 : 1996년 10월 18일(음 9. 7)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봉인사 한길정진원
전화 : (0346) 574-5585, 573-3096

出家子·적경 (조계 총림 송광사) / 一 子·한상린 (도서출판 단이슬대표), 상기 (주·동방아그로), 상만 (한길 컨설팅 대표), 상경 (주·산과바다 대표) / 신도회장·이 보리심

봉인사 한길정진원

현불뉴스

능인선원 신협 창립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지난 7일 능인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광스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조합원 및 출자금을 모집한 능인신용협동조합은 현재 4백여명 조합원이 1억5천여만원을 출자했다.

19일 포교국장단 연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포교국장단 연수회를 19~20일 대구 동화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구본사 및 전국 주요사찰 포교국장 40여명이 참석하며, 종단 포교활성화 방안과 하계수련회 운영, 본사 포교국 운영사례 발표와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제적원 철회서 작성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1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달 조계종 집행부와 합의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로 재결의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들은 조계종에 제출했던 제적원 철회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협의기구설치를 위한 위원은 추후에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122회 종회에서 협의기구위원으로 혜창 정우 성문 현응스님을 선출했다.

19일 교육개혁 세미나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세종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교육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불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상범 동국대교수가 기조발제하고 윤이흠 서울대교수와 오형근 동국대교수가 '한국 다종교사회에서의 전통교육위상' '교육개혁과 종교교육제도'를 발표한다.

해외여행 신고 의무화

앞으로 조계종 종무원(주지)이 2주이내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교구본사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종무원(주지)이 15일이상, 년 2회이상 해외여행을 할 때는 총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는 오는 19일 오후3시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남북합의서 이행의 현실적방안을 도색키 위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계사 도량확장불사 '순조'

87년부터 4천여평 매입… '불교타운' 조성 일환

'한국불교 포교 1번지' 조계사가 커지고 있다. 60여년전부터 빌딩속에 굳건히 정좌해 온 조계사가 새로운 전법을 향한 도량확장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새역사를 열기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도량확장불사에 나서고 있다.

한국불교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조계사는 최근 견지·수송동 일대를 '불교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지난 87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왔다.



이같은 불사는 지난 87년 현근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조계사를 한국불교의 성지로 만들어 포교·전법·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원력에서부터 시작됐다.

조계사는 87년 견지동 53번지 49평 매입을 시작으로 9년여동안 약1백51억여원의 불사금으로 총 4천6백여평의 부지 매입을 마친 상태다. 이로써 기존 1천9백여평이 6천6백여평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한 곳은 조계사 인근 삭당가와 병원등 30필지를 비롯 최근 39번지 일대 주택 20필지를 매입했다. 이밖에도 93년에는 강서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신정동에 6백83평등 부지를 매입했다.

이처럼 조계사가 매입한 부지는 2천년대의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대작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사측은 견지동일대의 부지를 모두 매입, 신행포교뿐만아니라 세계불교의 총체적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도량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 인터뷰

"견지동 일대 한국불교 성지로"

"20여년전 고산스님께서 조계사 주지로 계실 당시 재무소임을 보았습니다. 사중 살림을 살면서 조계사가 지닌 역사적 지리적 위상에 비해 도량이 협소하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때부터 조계사 도량확장을 절실하게 여겨왔지요."

마치 불도저가 땅을 밀어부치듯이 시내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4천여평이나 확장한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의 원력은 간절했다. 9년여 도량확장 불사에 매달리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분야에 쏟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이라고 한다.

스님은 "이 불사는 종단 중흥불사차원으로 불교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된다"며 종도들의 중지를 모아 한국불교의 현대적 성지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북한동포를 돕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북한동포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수원포교당에서 특별모금법회를 봉행, 2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총무원은 추석전까지 전국 순회모금 특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정신대 위령탑·전시관 추진

광주군 부지물색…역사교육장으로 조성

나눔의집(원장 혜진) 숙원사업인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위령탑 및 정신대전시관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혜진스님은 지난 8월16일 박종진 광주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나눔의집 운영현황과 정신대 위령탑 및 정신대 전시관건립 등의 숙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종진광주군수는 군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공 신익희선생의 기념공원내에 위령탑과 기념관을 설립하고 전국민이 성지로써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군 사회복지과는 교통이 좋은 곳으로 1만여평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관광지로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나눔의집은 지난 11일 광주군과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받아 진입로(900m)와 광주 천진암 볼게이트에서 나눔의집에 이르는 도로변에 안내 표지판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문화재지정 예고제 입법예고

문체부, 위원 10명 증원…매장문화재위 신설

문체부는 2일 문화재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7년부터 문화재위원수를 현행 50인에서 60인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문화재 지정시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문화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사전조사·검토를 거쳐 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백여건의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비해 전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조사·연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보의 경우 심의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정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토록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조계종·전신회 무관

총무원, 교구본사에 공문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8월31일 교구본사에 공문을 보내 "전국신도회는 신도법에 의해 구성된 중앙신도회와는 하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단체"라고 밝혔다.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와 신도단체에서는 현혹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현행 신도법에 의한 신도회 조직 및 구성에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산스님 82세 입적

부산 여래원 조실 벽성당 학산(碧城堂 鶴山)스님이 지난 9일 오전 8시40분 승랍 52세 세수 82세를 일기로 여래원에서 입적했다.

스님은 1945년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제방선원에서 수행에 임했으며 송광사에서 1970년부터 10여년간 유나로 주석했다.

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2일 월정사에서 봉행됐다.

해인사 사중마찰 '강원 폐강'

학인스님 종무행정 반발… 종회 조사특위 구성

해인사(주지 성법)는 지난 11일 산중총회를 열고 해인강원을 폐강조치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림관계자들은 "해인강원 강주를 비롯 학인들이 종무행정에 반발하며 현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며 강주 학감 학인 등 4명의 스님을 퇴방조치하고 강원을 폐강한데 이어 강원의 전화를 단절시켰다.

이에대해 해인강원 학인스님들은 14일 오후2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전국학인승려대회를 열어 강원폐강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9월12일 오후10시 현재〉

이에앞서 해인승가대학 비상대책위는 지난 5일 조계종 중앙종회 보고를 통해 "방장 혜암스님이 지난 8월 27일 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수진스님을 사임토록 하고 해임총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산스님 등 학인을 해인사를 떠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4일 해인총림대책위내의 갈등을 확인키 위해 법등스님(도리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쌀수입반대 농성 전농회, 조계사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쌀수입반대와 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전농련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앞에서 정부의 농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조계사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는 지난 11일 쌀수입반대,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주장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한 공동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내년 2월 결성

실무추진단 출범…교구신도회 11월말까지 구성

2년여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이 또다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총무원은 지난 11일 사찰-교구-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각급신도회구성 실무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향후일정을 발표했다.

실무추진단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10월말까지 1천8백여개의 사찰신도회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교구신도회를 결성해 97년 2월경에 제1기 중앙신도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찰신도회는 숫자에 구애없이 10여명만 되면 일단 창립하도록하고 재가연합, 전국신도회를 비롯 직능단체는 사찰, 교구, 중앙신도회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각급신도회구성 실무추진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구성된 중앙신도회창립준비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총무원이 직접 주관하게 됐다.

복원중인 선원사터 '본래자리' 논란

강화지역 사학자들이 현재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화선원사 터는 나라의 절인 '신니동가궐' 터로 추정되며 본래의 선원사 터는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 앞 일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선원사 학술조사 및 발굴 복원작업 관계자들은 현 선원사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마음 고정관념이 죽어야…

죽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는다니까 육신이 죽는줄로 알지 마십시요. 고정된 생각, 고정된 관념이 죽어야 백지장을 뚫을 수 있고 은산철벽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없는 문으로 드나드는 것이지요. 고정관념이 죽지 않고서는 변할 수 있을 수 없지요. 깨달음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한번이 아니라 죽고 또 죽어야 비로소 여래의 자리에 들어 있지요. (항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본은 가득,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 개업 2주년

이 땅을
향기 가득한
부처님 세계로
가꾸어가겠습니다

불법 홍포의 기수를 자처하고 여러분 앞에 선 지 이제 두 돕.
책방 여시아문은 그간 고객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조금의 게으름도 허용치 않고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 말없이 지키보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이 있기에 책방 여시아문은 이땅을 불음의 향기 가득한 정토의 세계로 가꾸어가기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오시는법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 주일에 걸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정: 10월 23일~29일(일 주일간)

▶ 사보 구분: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6판, 4×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참관 고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 선정 발표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 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 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들 때문에 '책 읽기'의 가벼워지기와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는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고른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을 6명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본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 운용 방법: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에 게재

책방 여시아문 주소: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737-0695 / 팩스:737-0696



그림으로 읽는 한국의 명시

푸르른 날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나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가슴으로 詩를 읽는 계절 가을. 한권의 시집을 들고 전시회장을 찾기 딱 좋은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마음을 풍성히 해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실천문학사는 문학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 대표시인 40명의 시를 그림과 함께 묶은 시화집 〈그림으로 읽는 한국의 명시〉를 펴내고 오는 24일까지 학고재화랑에서 시화집에 수록된 그림 40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고 있다. 이 시화집에는 '진달래꽃'(김소월) '푸르른 날(송수남 그림)'(서정주) '승무'(조지훈) '꽃'(김수영) '문의마을에 가서'(고은) 등의 명시와 함께 이대원 송수남 임옥상 이만익 이왈종 씨등 38명의 화가의 그림이 수록됐다.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결쳐지는 상상화와 화가들의 명시감상법을 비교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숙〉

觀音鳥가 되리라 ①

주부신행담

대로 불교를 신봉해 온 집안의 영향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나이 스물 일곱에 50대의 아주머니들을 따라 해인사를 다녔다.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를 하는 모임의 '애기보살'로 따라다니며 부처님께 귀의했던 것이다. 어머니뻘 되는 분들과 어울려 기도를 다닌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울림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었으므로 별 탈이 없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이제 혼자 기도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아껴주는 스님의 배려로 해인사 응진전에서 혼자 철야정진을 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이후 줄곧 절을 하고 관을 정근을 하다가 지치고 지치면 앉아 몸과 마음을 쉬는 기도였다. 그때는 특별한 소망도 원력도 없었다. 그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했다.그리고 기도를 하고 서울로 돌라 오면 모든 생활이 즐거웠다.

거의 매주 해인사를 다니며 나는 기도하는 즐거움을 즐겼다. 성철스님으로부터 실상행이라는 법명을 받았을 때는 '나는 행복한 불자야'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나는 3일간의 용맹정진을 계획했다. 3일간 최소한의 음식과 잠을 제외하고는 오직 기도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때 왜 그런 당찬 계획을 세워야 했는지는 모른다.

"스님, 3일만 응진전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뭐하게?"

"그냥요.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어서요."

"관세음보살님이 거기 있다더냐?"

"……."

어렵게 허락을 받고 응진전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절을 하고 간단한 휴식을 한 후 오후에는 정근을 했다. 저녁에는 다시 절을 하고 자정을 넘기면 정근을 하고 새벽에는 조용히 앉아 몸과 마음을 가라 앉히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기도의 일정이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법당은 매우 추웠지만 난로를 피우거나 두터운 옷을 입지도 않았다. 식사량도 평소보다 반가량 줄였고 생수는 주전자 채로 준비했다. 기왕 시작한 기도는 고행이어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첫날은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두번째 날은 육체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절을 하는 두다리와 허리는 끊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 아픔은 다시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후들후들 떨리는 현상으로 번했다. 절을 하기는 하는데 내 다리로 하는지 남의 다리로 하는지 모를 정도였다. 다리는 절과 상관이 없는 존재고 오직 내 정신만이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끝내는 절을 하며 다리의 통증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미 목도 쉬어 있었다.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목소리도 내 목에서 나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무튼 힘들다고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는 없었다. 둘째날의 고통은 셋째날의 새벽 깊은 잠으로 어느정도 극복됐다. 단 두시간의 새벽잠이 그렇게 깊을 수 있다는데 무척 놀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3일동안 절과 정근 반복하니
온몸이 쑤시고 목도 쉬었다
절을 하는 것은 오직 정신뿐…



그림 · 이준석

그래서 마지막 날은 보다 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낮 기도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왼일인지 몸이 뜻대로 움직여 주질 않았다. 온 몸이 서걱서걱 모래 소리를 내는듯 하다가 욱신욱신 쑤시고 결리기도 했다. '이러다가 병이 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났고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니야, 지금이 고비야. 마구니가 처들어 오는거야.'라는 전혀 뜻밖의 생각이 온 몸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실 상 행
〈서울 동작구 상도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㊺

♦ is he not given to sensual pleasures?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is his mind undisturbed? Has he overcome folly? does he see clearly in all things dhammas?

그는 음탕한 향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는 않을가? 마음은 평정한가?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의 진법을 똑똑히 볼수 있을까? 설산야차가 말했다.

♦ He is not given to sensual pleasures - so said the Yakkha Stagira - and his mind is undisturbed : he has overcome all folly. Buddha sees clearly in (all) things.

그분은 음탕한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그는 평정하며, 또한 모든 사물의 진법을 똑똑히 볼 수 있다. 칠악야차가 말했다.

♦ is he endowed with knowledge? - so said the Yakkha Hemavata - is his conduct pure?

have his passions been destroyed? is there no new birth (for him)?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고결할까? 그는 고(苦)를 소멸했을까? 속세에 다시 태어나는 않을까? 설산야차가 말했다.

♦ He is endowed with knowledge - so said the Yakkha Satagira - and his conduct is pure; all his passions have been destroyed; there is no new birth for him.

그분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 분의 행동은 고결하다. 그분은 고(苦)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는 속세에 태어나는 않는다.

*sensual (a) 음탕한, 관능적인
*undisturbed (a) 괴롭히지지 않은, 평정한
*folly (a)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
*overcome (v) 이기다, 극복하다
*be endowed with ~을 타고나다, 속이 부여되다
*pure (a) 순수한, 고결한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⑥·끝
루디야드 키플링 作

그 마라하타는 영국 측량국이 관리하는 첩보원 E23이었다. 그는 킴의 도움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 났다. 그는 활동하던 지역에서 죄인으로 몰려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킴과 노스님의 여행은 계속 됐다. "고원지대로 가는 사람은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이다." 며칠을 걸어 3천 미터 높이에 이르자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 했다. 킴은 한 마을에서 담요를 얻어 몸에 둘렀다.

"이 산들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챌라야 진짜 고원지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까짓 것은 추위라고 할 수도 없지."

킴과 노스님의 여행은 고산지대를 따라 계속 됐다. 스님은 가운이 새로 솟아 오르는 듯 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다시 발걸음이 힘겨워졌다.

"산 중에서 가장 축복 받은 산이여, 붓다의 화살은 너에게 떨어지지 않았도다. 난 다시는 너의 공기를 숨쉬지 않으리라!"

킴은 평원의 잘 자란 곡식들을 바라보며 스님을 위로했다.

"분명 이 근처에 화살이 떨어졌어요. 이제부턴 천천히 걷기로 해요. 하루에 4키로씩만 걸어요. 스님의 강은 이제 다 찾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 우리의 추구는 곧 이루어 질거야."

킴의 자극한 시봉을 받은 노스님은 며칠내로 찾아 올 해탈의 경지를 예견했다. 두 사람은 인도의 대간선도로에서 만났던 노부인의 집을 찾아 갔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킴은 마흐붑 알리와 하리 바브를 만났다.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정보 서류와 E23이 찾던 편지의 행방이었다. 어느날 스님은 강물에 빠졌었고 킴은 재빨리 스님을 구했다. 그리고 스님은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킴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던지다 잠들었고 노스님과 마흐붑이 킴을 찾아 광야를 헤맸다. 킴이 누워 있던 풀 밭에서 노스님은 좌선을 하고 앉았다. 한참 동안의 침묵 뒤에 스님이 말했다.

"실로 내 영혼은 자유로와 졌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원을 그리면서 실제로 테슈 리마도 다른 어떤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깊은 명상 속에서 강을 보았다. 그 강은 내 발 아래서 흐르고 있었다. 화살의 강이었다. 나는 화살의 강을 찾았다. 명상에서 깨어나 보니 강은 내게로 와 있었다. 내 영혼의 아들아, 나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듯이 널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해탈의 문턱에서 내 영혼을 되돌렸다. 생의 수레바퀴는 어긋남이 없다. 우리의 해탈은 이제 눈앞에 있다. 이리 오너라."

노스님의 미소는 사랑하는 사람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자비였다



그림 · 심민섭

노스님은 경건하게 말을 마치고 무릎위에 두 손을 내려 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자비로운 미소였다.

생활속의 불교 ⑧⑨

놓고 쉼은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살핀다.

우리는 대상을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나와 세계를 구분한다. 주체와 객체의 분립이다.

그결과 우리들은 안으로 보면 자아가 있고 밖으로 보면 세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확신은 나아가 자아와 세계를 고정된 실재(實在)로 보게 만든다.

그러나 화석처럼 굳어진 불변의 자아, 불변의 세계는 없다. 불변이라면 영원한 것인데 과연 영원한 자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모든것은 변한다. 한 순간도 고정된 것은 없다. 고로 불변의 자아, 변치 않는 세계란 없다.

그렇다면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생각은 허구인가?

우리들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아의 실체를 잘 모른다. 흔히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자아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런 자아는 과연 어떤 자아일까?

또 잘 모르면서도 자아의 실체를 고집할 수 있을까?

대상으로 보이는 바깥 세계도 일정한 모습이 아니다. 내가 보는 세계조차도 때와 장소,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보게 되는 세계일지라도 보는 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보인다.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천차 만별로 비춰진다.

따라서 보는 주체도, 보이는 대상도 따지고 보면 정해진 모양은 없다. 불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연기(緣起) 작용일 뿐이라고 한다. 쉬운 말로 제 눈에 안경이라는 소리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비춰진 색·성·향·미·촉·법이 우리 마음의 꾸미는 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 날 뿐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꾸미는 마음이 그때 그때 자아와 세계의 내용을 정한다는 뜻이다.

고로 일체 유심조일뿐 고정된 자아, 고정된 세계는 없다는 것이다.

꾸미는 마음은 탐진치에 의해 좌우된다. 가령 탐심이 강할 수록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세계의 모습도 견고해 진다. 탐심이 적다면 자아의식도 느슨해지고 세계의 모습도 유연해진다.

나쁜 마음이면 자아의식과 세계는 악하게 변하고 좋은 마음이면 자아의식과 세계는 선하게 변한다.

고로 마음으로 한 생각 돌리는 데 따라 나 라는 존재나 대상세계는 얼마든지 모습을 바꾸게 된다.

사람마다 꾸미는 마음이 다르면 세계가 다르게 된다.

자아와 세계는 고정된 모습의 어떤 실재가 아니라 오로지 내 꾸미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불교는 해탈을 지향한다. 해탈이란 다름아닌 이 꾸미는 마음, 탐진치에 의해 좌우되는 마음을 바꾸는 것, 즉 자아와 세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나의 망심에 의해 벌어진 것임을 알아 그 망심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망심만 여의면 보는 놈으로부터 자유롭고, 보이는 놈으로부터도 자유로와 진다.

고로 불가에서는 탐진치 망심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놓으라고 한다.

자아와 대상에 얽매이는 마음을 쉬라고 한다. 놓고 쉬는 것은 잃는게 아니라 버리고 얻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협찬 : 임 소 정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컬러화보 (18·19면)
신라왕자 김교각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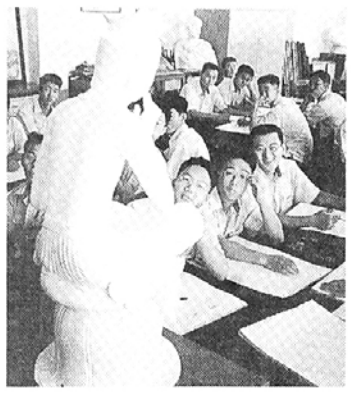
학교마다 꽃피는 '민족의 얼'

현대불교신문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민족의 얼과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이 불교계를 비롯 정계 재계 문화계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속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동참자들의 귀한 인연을 모았다.

〈편집자 주〉



◇서울 영림중학교내 박물관 중앙에 전시되고 있는 미륵보살반가상. 윤종영교장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울산 중앙고 2학년 미술 소묘시간에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미륵보살반가상.

교육현장의 반응

서울 영림중

금옷입혀 미니 박물관 전시
"문화 자긍심 절로 느껴요"

미륵반가상이 서울 구로구 영림중학교(교장 윤종영) 미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교실하나를 개조해 만든 이 박물관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라금관모형, 석굴암 내부모형도, 한국고고미술학회에서 미술품, 민속품등이 전시되어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박물관 가장 중앙에 자리잡은 국보 제83호 미륵보살반가상이다. 이 반가상은 다름아닌 전국중고교 데생용 미륵반가상보내기운동을 신문을 통해 접한 이 학교 윤종영교장이 모형을 직접 구입해 금옷을 입혀 전시하고 있는 것.

"우리것을 먼저 알지 않고서 무조건 세계화만 외치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우리것에 대한 자긍심을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한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윤교장은 박물관을 찾은 어린 제자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처럼 미륵반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국보이자 선조의 얼이 깃든 미륵반가상은 신비적 정신적 표현양식으로 미술교육적 가치가 큽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같은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중앙고

반가상데생 학생들 호응
신학기 3시간 정규코스로

울산 중앙고 미술교사 이창락씨(55세)는 지난 8월 울산불자 임두식씨로부터 기증받아 당장 2학년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당초 데생은 학년초에 학습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륵반가상을 받고는 금년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겠다는 판단으로 2시간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참여도와 효과도 컸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상 미술수업은 고교의 경우 2학년 부터 3학년까지 매주 단 1시간 배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현실이 아쉽다는 이교사는 내년부터는 3월초 신학기에 3시간 정규코스로 반가상 데생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란〉

은 식구 참여 가정

송석구 동대총장 가족

"자라나는 세대 주체성 함양 제격"

"긴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세대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륵반가상의 교육적 활용은 우리 것 우리의 미(美)를 이해하게 하는 주체성을 길러줄 것으로 봅니다."

송 석 구 동국대총장(56세)은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운동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각자의 모교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각기 동참했다고 한다.

송총장은 대전중 중동고, 부인 정영자씨(52세)는 포항여고, 장녀 민정씨(26세)는 덕성여고, 장남 윤상씨(23세)는 용산고에 각각 신청해 보내주었다.



외할머니·부모·동생등 6명 동참

전성훈씨 가족

"전국 중·고교에 보급되고 있는 데생용 미륵반가상이 사회와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의 청순한 마음에 불성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사가 벌이고 있는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운동'에 동참, 자신의 모교는 물론 외할머니(이기순·73) 아버지(전수웅·58) 어머니(이금순·56) 동생(전성태·31, 전형준·27) 등 온 가족 6명의 모교에 반가상을 보낸 전성훈씨(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35)는 "우리나라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불자가 아니라해도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민족의 주체성을 체험케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입니다."

셀러리맨 전씨는 조석으로 빠짐없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독실한 불자다. 〈재〉

동참합제

은평구 사암연합회 구내 전체 중고교 전달

서울 은평구사암련(회장 성운)은 지난 3월 초 구내 중 고교 전체에 보내달라고 22구좌를 신청했다. 또한 선산 도리사(주지 법등)도 군내 전체 중고교에 보낼 예정이다.

윤용숙씨 개인 최다 50구좌 신청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은 개인 차원의 동참자로는 최다인 50구좌를 동참했다. 윤회장이 기증한 반가상은 일괄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대전 충남지역 중고교 및 종합복지관으로 보내졌다.

부산지역 기증학교 가장 많아

불심홍법원(이사장 정관스님)이 부산 영도 동래구 지역내 종립학교와 일반 중고교에 기증한 것을 비롯, 부산지역은 학교 차원의 동참은 물론 기증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도 가장 많았다.

중고교에 미륵반가상 보내기 운동

- 1구좌 10만원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 온라인 계좌—국민은행: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특별기고

'깨침의 미소'



서 희 건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웃고 계시다.

신비의 미소(微笑)다.

그 웃음은 사유(思惟)의 미소다.

그것은 삼매(三昧)의 웃음이다.

삼매의 경지가 오른 손 둘째 손가락 인지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나타나 있다. 인지가 중지를 지긋이 누르고 있다. 삼매의 기쁨으로 저절로 일어난 격정을 도력(道力)으로 지긋이 억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소를 관음보살상이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서 본다.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신비의 미소를 들라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모나리자'를 말한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해 보라.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미소와 모나리자의 미소를 견주어 보라.

다시 물어본다. 가장 훌륭한 사유상(思惟像)을 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어거스트 로댕(1840~1917)의 '생각하는 사람'을 든다. 이것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친 까닭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신비의 미소를 띤 미륵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보관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京都)의 광륭사(廣隆寺)에 모셔져 있다. 일본에 있다고 일본의 것은 아니다. 그 소재가 금강송(金剛松)이다. 강송(剛松)으로도 불리는 이 소나무는 뒤늦게 붙은 춘양목(春陽木)이나 적송(赤松)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이 소나무는 궁궐을 짓는 목재였고 지금은 문화재 보수에 없어서는 안될 우리나라의 소나무다.

완성된 최고의 인간상

그 좋은 금강송으로 조각한 반가상이 일본 국보 1호다. 신라가 일본의 국가 기틀을 만든 성덕태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성덕태자는 이 불상을 신라계의 진하승(秦河勝)에게 맡기며 모실 절을 짓도록 한다. 우리나라 금강송의 보관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그래서 광륭사의 영보전에 모셔져 있다.

일본서기(日本書記)에 그 사실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나는 존불(尊佛)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불상을 받아 예배드릴 자가 없는가' 황태자(성덕태자)는 대신들에게 말했다. 그때 진하승이 앞에 나서 '제가 모셔 예불하겠습니다'고 청하여 불상을 모실 봉강사(蜂岡寺)를 세웠다" 봉강사는 광륭사의 원래 이름이다.

일본인들은 '교토에 가서 광륭사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보지 않으면 교토 관광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일본인들만의 자랑이 아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의 놀라움은 이를 더 할 수 없는 찬사로 평가한다.

"광륭사의 이 불상에는 진실로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적인 속박을 초월하고 도달한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淸淨)하고 가장 원만한, 그리고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징으로 생각한다. 〈중략〉 과연 인류가 낳은 일대 걸작품이다."

생각하는 누님의 삼매

이 보살상에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일본 어떤 대학의 미술전공 학생이 이 보살상에 매혹되었다. 그는 갑자기 뛰어 올라가 보살상을 껴안았다. 격정을 참지 못한 것이다. 그 바람에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고 매스컴에서 야단이 났었다. 보살상의 새끼 손가락을 가져갔던 대학생은 자수하고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게 보수되었다.

우리가 준 일본 국보 제1호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금동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우리나라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같은 시대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다 빈치는 15세기에서 16세기를 걸쳐 산 위대한 인물이다. 로댕 역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을 산 위대한 예술가다.

그러나 우리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불모도, 목제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불모도 모른다. '모나리자'나 '생각하는 사람'보다 1천년에서 1천5백년이나 앞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신성한 조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서구보다 1천년을 앞선 '미소'이고 1천5백년을 앞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가고 있는 까닭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치기어린 흔동을 한다. 즉각 일본 국보 1호와 우리의 국보 83호를 비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양 것과의 비교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일본 것은 소재가 목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금과 동을 합금해 주조한 작품입니다. 한 불모장(佛母匠)이 똑같은 불상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보다는 주조가 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까. 또한 그렇지요. 신비의 미소와 삼매의 미소는 다르지요. 우리 것은 천년 전의 깨침의 웃음이고 생각하는 누님의 삼매이지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초의문화재단

올가을 추석명절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멋이 담긴

『차(茶)』와 『다기(茶器)』를 선물합시다

문화부에서 선정하여 외국의 국가 수반에게 선물용으로 사용되던

초의 선사의 다기

(다관+숙우+찻잔5개+받침5개+초의차)

가격:150,000원

다도 한국다도의 맥은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 되어졌습니다.

맥 이제 그의 문손인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가 생전에 쓰시던 다기를

전통 재현해 숨결과 맥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 다기는 주문에 의해서만 제작됩니다. 그러므로 선물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넣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후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452-791
우 체 국 010579-0026125 (예금주 / 전중석)

분청다기



가격 : 90,000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 예술미를 함께 살린 분청다기는 차(茶)를 즐기는 다인(茶人)들에게 한층 더 차원 높은 차 맛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질(質)좋은 재료와 다기(茶器)의 두께가 잘 설계되어 오랫동안 부드럽고 따뜻한 차맛을 즐길수가 있습니다.

좋은 찻잎과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된

초 의 차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되어온 차의 솜결과 맛을 용운스님께서 수년간 제다공법의 분석, 연구끝에 미침내 초의차를 탄생 시켰습니다



초의차 : 가격 34,000원
감로차 : 가격 23,000원

초봄의 이른새벽 이슬을 머금은 찻잎 하나하나를 모아서 정성스레 볶고 발효하여 만들어진 초의차는 그윽한 향과 맛 그리고 성질이 따뜻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초의차의 성분과 효능

1. 차잎의 찬 기운을 약발효(15%)로 제거 하였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것과 함께 녹차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 좋은 차잎만을 골라 만들었으므로 우려마시고 난 후의 차잎 상태가 처음 딴 차잎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초의차는 초봄의 차잎을 따서 만든 것이고 감로차는 이를 차잎을 따서 만든 것이므로 제다방법은 같으나 그 맛과 향이 조금 다릅니다

대만 동정산의 차잎을 우리의 취향에 맞게 만든

동정오룡차



가격 : 23,000원
대만의 고산차 중에서도 으뜸을 자랑하는 동정오룡 그 동정오룡의 차잎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제다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고산오룡차나 동정오룡차에서 느껴지는 억격운 향을 제거해 그 향이 맑고 부드러우며 맛 또한 뛰어납니다. 대만에서는 해발1000M이상의 높은산에서 나는 것은 모두 고산오룡차라고 부릅니다. 동정오룡차는 해발1500M로 고산차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 선물꾸러미

1. 초의선사 다기 — 가격 150,000 (다관+숙우+찻잔5개+받침5개+초의차)
2. 분청 다기 — 가격 90,000 (다관+숙우+찻잔5개+초의차)
3. 초의차 선물 꾸러미 — 가격 43,000 (초의차1통+감로차1통)
4. 오룡차 선물 꾸러미 — 가격 36,000 (오룡차2통)
5. 초의 오룡 선물 꾸러미 — 가격 45,000 (초의차+동정오룡차)
6. 초의 오룡 사은선물 꾸러미 — 가격 56,000 (초의차+감로차+오룡차)

"茶선물 꾸러미는 추석사은 선물로 20~30%의 가격에 드립니다"

초의문화재단 차, 다기 사업부 전화 : 732-2317~8, FAX : 732-2319

초의문화재단에서는 『차강의』(매주 수·금)와 『참선 강의』(매주 화)도 하고 있습니다. (참선강의는 무료)

특별기획 신라왕자

1200년만에 고국

9월 17~20일 경복궁 민속박물관서 전시 현대불교신문후원

유품·사진자료 2백여점 국내 첫 소개

'탄생-수행-성불' 입체배치…등신불 개함과정 공개

중국불교의 4대 성지중 하나인 구화산 지장도량을 일군 신라왕자 김교각스님(金喬覺 696~794)이 1천 2백년만에 귀국한다.

중국 구화산의 지장보살로 널리 알려진 신라왕자 김교각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복궁내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대륙으로 간 신라대각 김교각 유물 귀환전, 신라왕자 김교각전'은 구화산에 소장된 김교각스님 관련 유품과 사진자료 2백여점을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

이 전시회에서는 김교각스님의 탄생 수행 득도 육신불로의 성불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구화산 역사문물관과 안휘성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자료 60여점과 구화산의 역사 문물관련 사료 및 유적탁본 자료 40여점과 사진 1백여점등. 명나라 때 구화산 적성암에서 무하스님이 의로 쓴 〈화엄경〉 혈경을 비롯 경전·서화·도장·향로·탁본·불상·탑·종·바루·도자기 등 다양한 품목이 구화산 지장신앙의 역사를 실감나게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화산의 오랜 전통으로 전해오는 등신불에 대한 신앙적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등신불 개함과정도 공개한다.

김교각스님 탄생 1천 3백주년에 때맞춰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7일 오전 11시 구화산 육신보전에 안치된 김교각스님의 육신불상(지장보살상)과 똑같은 형태로 모조된 지장보살상의 점안식으로 문을 연다. 이 지장보살상은 구화산 육신보전에 1천 2백년간 안치돼 온 육신불상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중국정부가 특별히 제작해 김교각전추진위에 기증한 것이다.

중국에서 들여 오는 유물과 국내에서 재현한 조형물을 전통 가람배치 양식을 도입해 입체적으로 진열, 전시효과를 살린점도 이번 전시의 특성이다. 전시장은 김교각스님의 탄생과 왕자로서 중국에 유학가는 장면을 입구에 배치하고 수행과정 득도과정 육신보살로 환생하는 과정 지장도량 화성사(化城寺)의 모습등을 순서대로 전시한다. 이어 '우리 곁에 온 지장보살' 코너에는 지장신앙에 대한 각종 자료를, '신성불국 구화산' 코너에는 구화산의 형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배치해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김교각전추진위는 "김교각스님의 탄신 1천 3백 주년을 기념하고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권 지장신앙의 선양과 발달에 미친 김교각스님의 영향과 업적을 고찰 민족의 성승으로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데 이번 전시의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전시와 관련 학술세미나 구화산 유적 성지순례(10월22~27일) 등의 부대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전시회에 이어 부산 광주 대구 경주등 지방에서도 순회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신라왕자 김교각전'에는 구화산 인덕(仁德)방장을 비롯 현지의 스님들과 중국불교협회, 안휘성 문화청 등의 고위 인사들도 대거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신라왕자 김교각전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립민속박물관과 문화일보가 주관한다. 문화체육부 한국방송공사 불교방송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대문 수효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주한중국대사관 보람은행 중국 안휘성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등이 후원한다. (전시문의=722-4147 추진위, 313-3060 수효사)

암연태 기자



지장혜 김교각스님이 수행할때 신었다고 전해지는 지장혜.



죽선스님 서화

참대 죽선스님의 서예작품. 모두 11장으로 구성됐다. 불경을 요약해 예서체와 전서체가 융화된 독특한 필체로 샀다.



'김교각전' 산파역 무구스님



"김교각스님은 한국불교 자긍심이죠"

"1천 2백년이란 긴 세월을 중국에서 추앙 받아온 김지장보살님은 이제 국내 불자들에게도 지장신앙의 거울로 받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종교적 처방을 지장보살님을 통해 찾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라왕자 김교각전'은 무구스님(수효사주지)의 오랜 서원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은 이 전시회가 지장신앙의 바른 이해와 구화산 김지장보살에 대한 국내 불자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무구스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 수차례 중국 구화산을 찾아 기도하고 협의하는 열의를 보여 왔다. 이번 전시를 위해 1천일간의 기도를 하며 남양주 백천사에서 지장보살의 방공을 체험하기도 한 스님은 작년에 〈지장경〉 3십3만권 보시운동을 회향했고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 〈지장왕 보살 김교각〉 등의 단행본도 출간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구화산 인덕방장을 초청 국내에서 법회를 가져 주목 받았었다.

스님의 지장신앙 홍포에 대한 서원은 90년 입적한 성훈스님의 유지이기도 하다. 성훈스님은 조국통일과 성불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고 불자(佛字)를 썼다. 1차로 3십3만자를 쓰고 2차 27만자를 쓴 상황에서 성훈스님은 입적했다.

"성훈스님께서 여러차례 선몽하여 3차까지의 나머지를 쓰라고 했지만 서예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불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3십3만권 법보시의 원력을 세웠고 그 일을 진행하며 구화산과 인연이 닿아 이번 전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구화산 화성사를 새롭게 중건한 전주자스님과 법명이 같다는 인연을 비롯 5년여간 이 불사를 추진하는 동안 스님은 지장보살에 대한 많은 감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그 감화를 개인적인 수행의 단편으로 여기지 않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지장보살의 덕화를 체험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김교각전 추진위원장 김명윤 의원



"살아있는 지장신앙 체험계기 되길"

이번 '신라왕자 김교각전'은 한국과 중국간 불교문화교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쾌거로 꼽힌다. 이번 전시를 위한 행정실무를 매끄럽게 이끌어 온 김명윤회장(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국회의원)은 '살아 있는 지장신앙의 결정을 체험하는 계기'란 데 전시의 의의를 두고 있다. 김회장은 이 전시회를 준비하며 중국측과의 실무적 난제들을 원만히 풀어냈으며 국내 후원체 섭외와 기획 홍보등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우리의 선조가 중국대륙에서 성인으로 추앙 받아 오고 있다는데서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김교각스님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행하며 지대한 업적을 남긴 우리의 고승들에 대한 관심 고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고승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며 쌓은 업적들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도 역사 바로세우기의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적 세계화란 우리의 높은 정신유산을 오늘에 되살리는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는 종교문화적 세계화의 경건한 도량석이라 믿습니다."



명대 대장경 중국 현존하는 명 장경의 가장 완성된 대장경. 수록(律藏), 논장(論藏) 등 총 12부 6백77함, 6천7백71권.

불교소설의 진수 -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지장왕 보살 김교각 스님 전기소설 나와!
탄생 1300주년 신라출신 中 최초 등신불
- 조선일보-

지장왕보살 추앙 김교각 스님 전기소설,
컬러화보집 동시 출간
- 경향신문 -

'성불' 김교각 스님 일대기 소설
「대륙의 신라왕자」 발간 - 일간스포츠-

「대륙의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 일대기
- 스포츠서울 -

KBS1.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된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지장왕 보살 김교각스님의 일대기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化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9월 17일 개막, 경복궁內 민속박물관에서 '신라왕자 김교각展'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전시회에 가보십시오, 감동이 배가 됩니다.

지장신앙의 실체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382쪽/ 값 7,000원





김교각 스님의 일생을 간략한 도움말과 함께
컬러 화보로 제작한 책

국판/104쪽 · 컬러 화보집 / 값 5,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대륙의 신라왕자'와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는 同名입니다.

우리출판사 313-5047, 313-5056

환생 "감화 한마당"



보살과 흰개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지장왕보살 김교각스님의 형상으로 신라에서 데리고 갔다는 흰개(선청 혹은 신견, 지체)를 타고 있다.



독룡뉴동인(獨龍紐銅印)

황제에게만 허용되던 용을 장식하고 있어 지장보살에 대한 숭배를 짐작케 하는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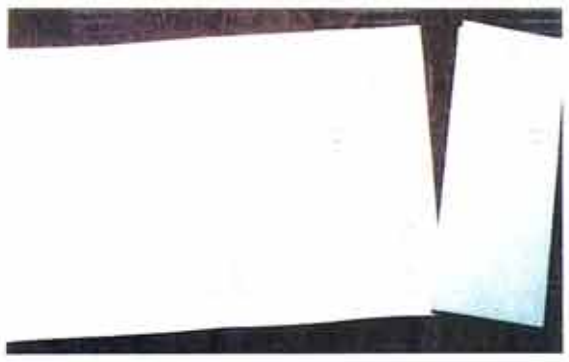
금동탑 14~17세기에 만들어진 미얀마 양식의 불탑.



지장보살금동상 구화산 역사문물관에 소장중인 이 지장보살금동상. 김교각스님의 등신불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강희황제 친필 편액

청나라 강희황제가 강남을 순행하던중 구화산에 들러 김지장의 열적에 감명을 받아 하사한 현판.



피로 쓴 화엄경

경대(明代) 구화산 적성암에서 무하스님이 혀와 손가락의 피를 내어 금가루를 섞어 필사한 화엄경.



장(三藏)의 경장(經藏), 율장

김교각스님은 누구인가

신라 성덕왕 장자…23세때 중국 구도
구화산 화성사 창건 교학·염불수행
99세로 원적 지장보살 화신으로 추앙

김교각스님은 1천 3백년전인 신라 효소왕 재위 4년에 태어났다. 성덕대왕의 장자였던 그의 이름은 교각이고 학명은 수충(守忠)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장자인 그가 무슨 연유로 왕위를 잇지 못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생애를 마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교각은 어릴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즐겼다. 그는 18세인 서기 714년에 당나라에 숙위학생(유학생)으로 건너가 당 현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는 유학을 하며 낙양의 백마사 하남의 숭산 소림사(달마가 수행한 곳) 등을 참배하고 불교에 깊은 감화를 받았다. 717년 그는 모친 성정왕후의 급전을 받고 귀국해 권력다툼의 참상을 겪게 된다. 그의 동생이 태자로 책봉되고 모친이 왕후에서 폐위되는 과정에서 그는 불법에 귀의할 것을 다짐하고 한 사찰로 출가 이름과 출생배경을 숨기고 지장(地藏)이란 법호를 썼다. 719년 그는 고국을 떠났다. 형장을 수습하고 흰 개 한마리를 데리고 당나라로 들어가 구도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김지장은 절강성의 보타산 근처에 이르러 거친 풍랑을 만났다. 민가에 유숙하다 해적을 만나 그들을 교화한 김지장은 다시 항주의 만불사로 갔다. 만불사에서 정진하며 교화활동을 하던 그는 다시 이상적인 수행도량을 찾아 동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귀지의 석문촌에서 만난 고제(高薺)라는 처사로부터 구화산을 소개받은 김지장은 구화산에 새로운 도량을 일구기로 마음먹었다. 동굴에서 수행하는 김지장에게는 여러 형태로 찾아오는 마구니들을 물리치고 제불보살을 감동시켰다. 김지장이 독경을 하면 관세음보살과 천룡, 대왕이 찾아와 경청했다고 한다.

구화산을 배경으로 지장은 회상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토착민을 교화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고음성다라니경〉 등 사부대경(四部大經)을 중심으로 교학과 염불수행을 부지런히 했다.

그는 수행정진 하는 가운데 논밭도 개간해 황립도(黃粒稻)와 금지차(金地茶)를 심어 수확했는데 지금까지 그 농사가 이어지고 있다. 황립도와 금지차는 지장이 신라에서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청양현 제갈절의 시주로 구화산에 화성사(化城寺)를 창건하고 더욱 교화의 마당을 넓혔다. 고국에서 친척들이 찾아와 환국을 권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지장은 당 정원(貞元) 10년 7월 30일 세수 99세의 생애를 마치고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가부좌 한 채 원적에 든 그의 육신은 석함에 보관됐다가 3년후 개봉됐는데 얼굴색이 살아 있을 때와 다름 없었고 뼈마디에서는 영롱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는 보살의 표징이므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 받았다. 대중들은 지장의 육신에 금분을 입혀 삼층석탑에 안치 했다. 이 탑이 지금의 육신보전이다.

이같은 지장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전거는 많지 않다. 지장을 언급한 기록은 〈송고승전〉 〈신승전〉 〈구화산창건 화성사비기〉 〈중수 화성사기〉 〈중건 구화 화성사비기〉 등과 이백(李白)의 '지장보살찬'을 비롯한 당대의 문인들이 남긴 기록등이 전한다. 김지장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송동자하산' '수혜미' 등도 그의 궤적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김지장의 출생 배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책의 산실, 우리출판사가 권하는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 계속 발행됩니다.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전10권) 시리즈의 특징
1. 해당 인물의 시실을 한글로 한글세대 청기들이 접할수 있도록 편집
2. 방대한 자료조사와 철저한 고증
3. 한글세대를 위한 이해쉽고 정확한 문체 사용
4. 해설과 각주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큰스님들의 가르침 상하를 현대적으로 정립하는 일
5.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업적을 이룬 고승 총망라
6. 주요 고승 및 인물 설명 찾아보기 등 참고사항 첨부

열린기획, 참신 디자인, 생명력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1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경서슬 편
2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보조국사 지눌 편
3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성철 스님 편
4 풍금치는 큰스님/용성 스님 편
5 허공에 매달린 물병/부설거사 편
6 하늘이여, 땅이여/이차돈 편
7 부처눈에 부처, 돼지눈에 돼지/당학대기 편 근간
8 푸른 암자의 노래/초의선사 편 근간
9 못구멍 없는 소가 되어/경허선사 편 근간
10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서옹학감 편 근간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 경서슬 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 보조국사 지눌 편
멀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 — 성철 스님 편
풍금치는 큰스님 — 용성 스님 편
허공에 매달린 물병 — 부설거사 편
하늘이여, 땅이여 — 이차돈 편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양장본 / 각 230면 내외 / 각권 6,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날마다 좋은날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 지음/신국판/304면/값6,000원
날마다 좋은날의 하루하루 사는 일이 즐거워 생활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한국의 명찰」에 계신 스무 분의 부처님들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눈에 잡힐 듯한 그모습 그대로 「한국의 명찰 20선」에 담았습니다

월정사, 쌍계사, 선운사, 부석사.....
이름만 들어도 정취가 넘치는 한국의 유명 사찰들을
스무편의 비디오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승대덕의 훌륭한 법문이
살아숨쉬는 「한국의 명찰」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은은한 목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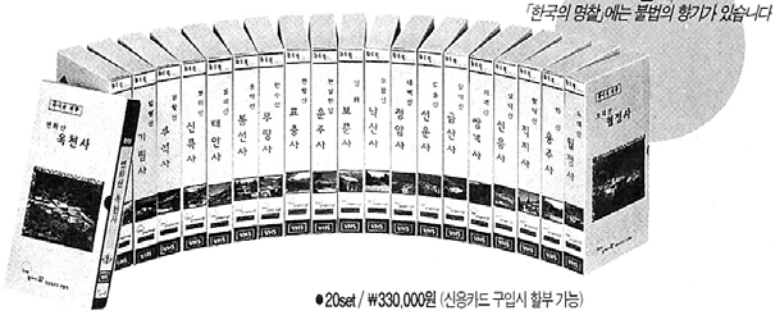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대하 다큐멘타리-
「한국의 명찰」20선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한국의 명찰」 20선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명사찰을 자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佛心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명찰」엔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감상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어 각급 학교의 VIDEO학습교재로 최적의 가치가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여러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증하셔도 좋습니다

구입 방법 : 100% 전화 주문
구입문의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한국의 명찰」 시리즈 20선!
「한국의 명찰」에는 불법의 향기가 있습니다



● 20set / ₩330,000원 (신용카드 구입시 할부 가능)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불심있는 주부아르바이트 모집
-전화 상담직
-연령 30~40대(서울시내 거주 하시는 분)